201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수상잡지

No.278

2014 BOM NAE

봄내



2월 14일 개관한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좌식배구 시연 모습 〈관련기사 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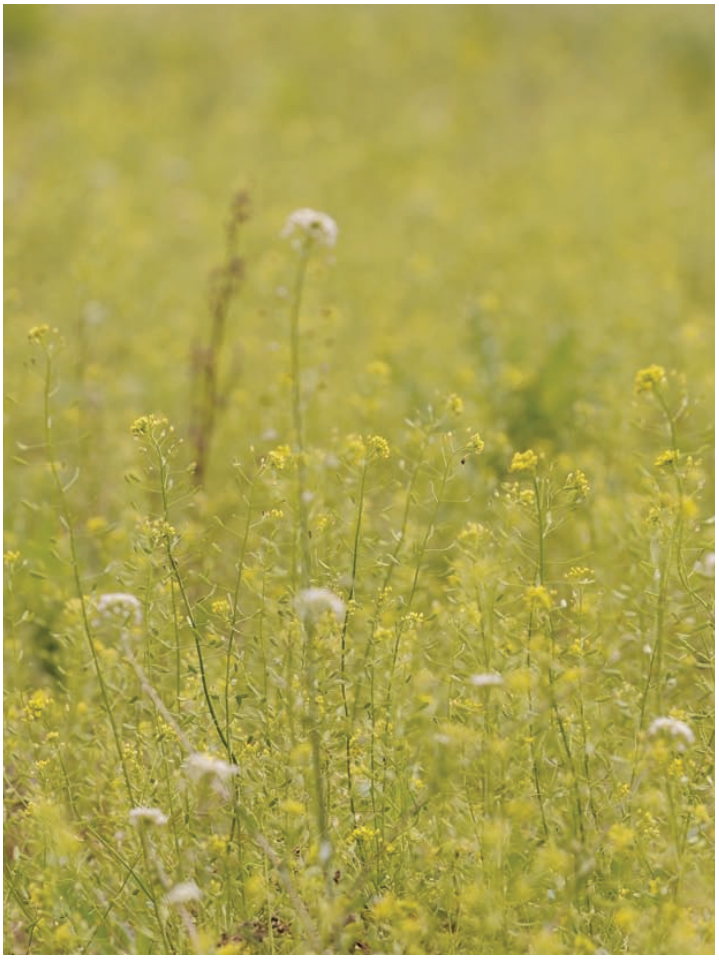
꽃다지

한 승 태

재재불대다, 한껏
까치발 한다
아, 배고픈 젖먹이들
입술 오므려 햇살을 빨고 있다

오종종한 입술들
젖내 가득한 봄날이다
무릎걸음으로 건너 온 나도
가만히 입술을 오므려 본다

뽀얗게 젖살 오른다
내세까지 환해지겠다



한승태 약력
- 199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당선
- 2002년 현대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 현)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수석 학예연구사

Contents

목 차

춘천시정 소식지 '봄내'가
(사)한국사보협회 주최
201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04 **포커스** – 정월대보름 달맞이 한마당축제

06 **춘천은 지금1** – 춘천장애인스포츠센터 꿈자람 어린이공원 개관

08 **춘천은 지금2** – 동면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

10 **생활 · 행정뉴스** – 연내 신규 아파트 3,669세대 공급

16 **우리고장기업** – ㈜자이월드

18 **우리고향 사람 3** – 한국과 이탈리아 문화교류 물꼬 튼 남대현 대표

20 **숲해설가가 안내하는 도시 숲기행 3** – 국사봉

22 **춘천, 그 이미지 공간 3** – 드라마 '첫사랑' 속 소양로

24 **우리마을 이장님 · 통장님** – 효자3동 강금옥 통장

26 **받은 편지함** – 한 장의 사진이 주는 그리움

28 **춘천의 전래놀이문화 3** – 람승도 놀이

30 **춘천의 설화 3** – 부인의 지혜로 위기에서 벗어난 하인

32 **독립운동의 시발점 춘천의병 3** – 춘천의 3 · 1운동

34 **건강춘천** – 휠체어댄스로 꿈 찾아가는 양광석 씨

36 **낭만춘천** – 제4회 성수 윈드 앙상블 정기연주회

38 **행복춘천** – 춘천경찰서 '무궁화 효 봉사단'

40 **안전춘천** – 5만원권 위조지폐 사용한 범인 검거

42 **의회소식**

44 **봄내골소식**

48 **알림마당**

52 **통학 시내버스 노선표**

56 **광고**



6



12



15

봄내 | 278호(2014년 3월호) / 비매품
발행인 | 신용철
기획 및 디자인 | 춘천시 공보담당관
(033–250–3229, 250–4169)
창간일 | 1993년 1월 25일
발행일 | 2014년 2월 25일

알림

- 춘천시정 소식지 봄내는 월간 무료구독지입니다.
- 봄내는 http://www.chuncheon.go.kr 에서 웹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웹진 구독신청은 ccc3@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이메일주소, 연락처 기재)

정월대보름 달맞이 한마당 축제



사진설명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 쥐불놀이
- 뒤뚜루농악보존회 횃불놀이
- 한림대로 어학연수를 온 유학생들이 소원지를 매달고 있다.
- 신용철 춘천시장 권한대행이 장승을 세우기 전 점안을 하고 있다.
- 봄내 전국 가족연날리기 대회
-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한해 소원을 기원하고 있다.











풍요롭고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4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한마당 축제가
지난 2월14일 춘천 의암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렸다.
대보름 본 행사로 덕담 나누기, 소원풍등 날리기, 장승 · 솟대
세우기,불글씨 점화, 달맞이고사, 달집태우기가 진행됐고 부대
행사로 가훈 써주기, 소원지 달기, 희망엽서 보내기,
부럼 깨기, 쥐불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민속놀이에 참가한 시민들은 소원지를 매단 달집에
불이 타오르자 한 해 무사안녕을 소망했다.





2월 14일, 구 캠프페이지 부지

장애인스포츠센터 꿈자람어린이공원 개관



옛 캠프페이지 내에 장애인스포츠센터와 꿈자람어린이공원이 2월 14일 동시에 문을 열었다.

춘천시는 이날 오후2시 장애인과 어린이, 관련 기관 · 단체 · 시민 등 800여명을 초청해 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개관식에 이어 부대행사로 장애인 댄스스포츠, 좌식배구, 휠체어 배드민턴 시범경기가 열렸다. 지난해 5월 격납고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 장애인스포츠센터에는 44억원, 꿈자람어린이공원에는 5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900㎡ 규모로 수중리프트, 휠체어, 러닝머신을 갖춘 도내 유일의 다중 수중운동실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있다. 또 다양한 재활운동기구를 갖춘 헬스장과 배드민턴, 배구, 농구가 가능한 다목적체육실 그리고 샤워실, 탈의실을 갖추고 있다.

삼천동 어린이회관 폐관에 따른 대체시설로 조성된 어린이 놀이시설인

▶ **꿈자람어린이공원**은 지상 2층 연면적 1,400㎡ 규모이다.

1층은 영 · 유아, 2층은 어린이 공간으로 구분돼 에어바운스, 미끄럼틀, 트램펄린, 에어볼 등 10여개의 놀이시설이 있다. 동시에 30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바닥에는 안전을 위한 쿠션, 안전매트가 깔려 있다.

놀이공간과 보호자 대기실 사이에는 투명창이 설치돼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

두 시설은 시체육진흥재단이 위탁 운영한다.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조례에 따른 이용료를 받으나 장애인은 50% 할인해 준다. 꿈자람어린이공원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장애인스포츠센터 내의 다목적체육관은 오전 6시 ~ 밤 9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어린이공원은 주중에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사전 예약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생이 이용토록 하고, 주말에는 개인별로 선착순 입장한다. 당분간 무료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복지2과 ☎250-3670 체육진흥재단 ☎250-3663〉

동면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 6월 준공

착공 2년 8개월 만에 눈 앞, 춘천시 인터넷데이터산업 구축



완공 후의 조감도

동면 만천리에 조성 중인 국내 대표 인터넷기업인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오는 6월 최종 준공된다.

춘천의 청정이미지, 첨단산업단지 취지를 살려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시설로 설계, 시공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기공한 이 산업단지는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국도 46호선이 지나는 구봉산 자락 아래 언덕 10만㎡ 규모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는 2012년 말 준공, 지난해 6월부터 가동 중이며 현재 공사를 진행 하고 있는 연수원 용도의 강당, 숙소, 연구동 3개 시설이 조성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적용, 지역 인근 소양강 찬물을 끌어와 냉각수로 쓰고 다시 여타 시설 가동에 재활용한다.

독특한 건물 외관과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배치로 산업단지 자체가 벌써부터 명소가 되고 있다. 정식 운영 시기는 9월로 예정돼 있다. 상주 인원은 200여 명이다.

지역 산업단지로는 10번째, 도시첨단산업단지로는 근화동 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에 이어 2번째이다.

춘천시는 정부의 제3통합전산센터 유치까지 성사되면 기존 네이버, 더존IT그룹 등의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업 산업단지와 함께 인터넷데이터산업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과 ☎250-4812〉

시민 개인정보 더 안전하게 관리

시청 내 모든 컴퓨터 강력 보안시스템 구축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관리된다.

춘천시는 최근 사무실 모든 직원 컴퓨터에 대해 강력한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공인된 이동용 저장장치(USB)로만 자료를 저장할 수 있고, 여타 장치로는 인식을 못 해 어떤 파일도 옮기지 못하게 돼 있다.

공인 저장장치 내 자료는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내 · 외부 다른 컴퓨터에서는 읽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앞으로 각 부서는 공인된 보안 장치만 이용해야 하고 외부 출장 등에 이용할 때는 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외부 컴퓨터 접속 시 저장자료가 바로 삭제된다.

춘천시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라 시청 내 모든 컴퓨터에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설치, 자동으로 관리하는 데 이어 이번 첨단 보안 저장장치 사용으로 개인정보를 한층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과 ☎250-3077〉



연내 신규 아파트 3,669세대 공급

소양로 재건축 4월 입주 … LH 장학임대, 장학 분양, 효일 재건축 순

연내 4개 아파트단지가 준공돼 모두 3,669세대가 공급된다. 이는 근래뿐 아니라 향후 4~5년간을 따져도 가장 많은 신규 물량이다.

연내 준공 아파트는 효일 재건축(현진에버빌 3차) 641세대, 소양로 재건축(e편한세상) 1,431세대, 엘에이치(LH) 장학임대 1,037세대, 장학 분양 560세대이다.

이 중 소양로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4월 가장 먼저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LH 장학임대 6월, 장학 분양 8월, 효일 재건축 10월 순이다. 내년 예정된 입주물량은 온의동 롯데캐슬 아파트(996세대)뿐이다. 지난해는 1,300여 세대였다.

시는 3,000세대가 넘는 신규 물량 공급으로 아파트 전세난이 풀리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건축과 ☎250-4261〉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접수

3월 3일~5일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 … 1인 최대 지급액 월 7만원

춘천시는 3월 3일~5일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유동광고물(종이) 수거 보상 접수를 한다.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등, 교통시설물, 건물 벽면,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 도로 및 자동차에 불법으로 뿌려진 소형 전단 및 명함형 전단이다.

신문지 안에 든 전단, 선거, 행정 홍보용 전단, 개인주택, 공동주택 현관문 부착, 우체통에 투입된 전단 등은 제외된다. 보상금은 1매당 벽보 200원, 전단 100원, 명함 20원이고 1인 최대 지급액은 월 7만원이다.

접수는 3월~12월까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3일 동안 해당 읍 ·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한다.

시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2009년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관과 ☎250-3457〉



2월 말부터 팔호광장 진입차량 우회 바랍니다

팔호광장~별당막국수 간 하수관 확장공사 … 2월 말~5월 말

팔호광장~별당막국수 간 하수관 확장공사가 2월 28일 착공한다. 이번 공사는 현재 하수관 용량을 2배로 늘려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춘천시는 차량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사를 5월 22일까지는 마치기로 하고 별도의 교통대책을 마련했다. 공사 중에도 반대편 차선을 이용한 통행은 가능하도록 했다.

통행 불편 많겠지만 수해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 시민 협조 당부

팔호광장~외환은행 구간은 하수암거 설치가 이뤄짐에 따라 외환은행에서 팔호광장 방향으로는 차량 진입이 통제된다. 팔호광장에서 외환은행 방향은 상 · 하행 교행 차선으로 활용한다.

외환은행~별당막국수로 이어지는 뒷길은 차량 진입을 차단하지만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해 주민 통행은 가능토록 했다. 시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 굴착으로 통행 불편이 따르겠지만 수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수시설과 ☎250-3599〉

금연시설에서 흡연하면 10만원 과태료

공공청사·병원·일반음식점·PC방 등 해당

2월 10일부터 금연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실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춘천시보건소는 지난 2월 7일까지 보름여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2월 10일부터 전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단속 시설은 공공청사, 병원, 100㎡ 이상 일반음식점, 피시(PC)방 등 5,100여 곳이다.

단속은 공무원, 경찰, 민간단체 합동으로 실시하고, 심야 불시 점검도 이뤄진다.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 등이다.

해당 시설 점유, 관리자가 금연구역 스티커나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1차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건강관리과 ☎250-4660〉



폭설 강타한 영동지역에 도움의 손길

춘천시 민간단체·자원봉사자 등 복구에 힘 보태

춘천시 직원과 장비 지원

춘천시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 시청 직원 등 200여 명이 영동지역을 강타한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와 고성군 등을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자발적으로 찾아 제설작업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 또 춘천시는 유니목을 장착한 덤프트럭 5대(15톤 4대, 5톤 1대)를 지원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이 · 통장협의회, 새마을시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시 직원 등 70여명은 2월 11일과 12일 강릉시 월호평동 농가하우스에서 제설 등 복구지원활동을 폈으며, 남면 의용소방대(대장 김정환)와 남면사무소 직원 등 20명은 2월 13일 강릉을 방문, 라면 50상자를 전달하고 폭설지역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축사와 농업시설물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2월 17일과 18일에는 퇴계동, 근화동 주민과 자생단체 회원 등 60여명이 고성군을 찾아 제설작업을 도왔다.





옛 캠프페이지 꽃동산 펼친다

유채 · 메밀 · 클로버 · 백일홍 · 코스모스 등 자태 선보여



옛 캠프페이지에 올해도 도심 속 꽃동산이 만들어진다. 춘천시는 부지 내 11.2ha에 연중 다양한 경관식물을 가꾸기로 했다. 3월 중순 가장 먼저 유채꽃 씨앗을 파종한다.

5월 중에 노란꽃들이 시민과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메밀도 꽃망울을 터트린다.

6월에는 지난해 심은 클로버가, 7월에는 백일홍이 장식한다.

가을 경관식물은 코스모스, 메밀, 국화꽃으로 정했다.

지난해 수박, 참외를 심었던 관통도로 옆 과수원 부지는 꽃양귀비가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시는 내년까지 캠프페이지 둘레를 따라 낭만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올해는 3km를 준공한다.

〈농정과 ☎250-3763〉

올해 지역교육 육성에 152억원 투자

교육시설 개·보수,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춘천시는 올해 지역교육 육성사업에 152억원을 투자한다.

초중고교 32개 사업에 148억원, 대학 10개 사업에 4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주요 지원사업은 △교육시설 개 · 보수 △원어민 보조교사 비용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기자재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교버스 운행 등이다.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에 2억5천만원, 학교 우유급식에 3억5천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 다문화가정 자녀 양육, 교육, 여가활동 지원 등 교육비로 22억원이 쓰인다.

장애인 자녀 학비와 재활치료 등에 6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28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비는 10억원이다.

고등학생 등교버스 운행에 4억원, 학교 체육 육성에 8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40건 33억원의 사업을 신청하였는데, 시는 춘천교육지원청과 현장 확인을 마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2월 말까지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무과 ☎250-4077〉



착한가격업소 43곳 선정

음식점 35곳, 이미용업소 7곳, 목욕탕 1곳

춘천시는 착한가격업소 43곳을 선정했다.

이들 업소는 값싸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관리한다.

시청 공무원과 시민들의 이용이 권장되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주변의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려면 언제든 시 경제과에 알려주면 된다.

물가모니터요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후 1년에 2회 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과 ☎250-3083〉

착한가격 선정업소

음식점(35곳)

오봉산막국수, 촌닭곰탕, 뚝배기마을, 복쉼터, 일산식당, 유가네감자탕, 듬뿍담뿍, 곰스넥, 삐삐스넥1호, 그시절옛집, 윤가네손칼국수, 낭만국시, 민생식당, 약사촌닭갈비, 골목순두부, 솔난토속집, 국수나라, 신성심식당, 진미식당, 보안곰탕, 한신각, 행복한두부, 사또설렁탕, 참맛부흥닭갈비, 봉실스넥, 곱돌생삼겹살, 가정식당, 남경, 춘천해물칼국수, 돼생이, 화로미 본점, 해미담, 명문손칼국수, 터미널만나식당, 화로미 분점

이미용업소(7곳)

해바라기헤어살롱, 개성시대, 쌍다리이용소, 석사이발관, 현주헤어숍, 가고파미용실, 진미용실

목욕탕(1곳) 바위목욕탕

올해 농촌 18개 외진 마을에 수돗물 공급

30억원 들여 4월 착공, 10월 준공 예정

아직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18개 외진 마을에 수돗물이 공급된다. 춘천시는 올해 30억원을 들여 농촌지역 상수도 급수관 확충사업을 벌인다. 18개 마을 215 가구에 급 · 배수관이 집 경계까지 연결된다. 4월쯤 착공, 10월 준공 예정이다. 대상은 신북읍 지내1리 외 1개소, 동내면 거두1리 외 3개소, 동면 장학리 외 2개소, 신동면 정족2리 외 2개소, 서면 월송리 외 1개소, 남산면 창촌3리 외 1개소, 남면 후동1리, 강남동과 온의동의 외떨어진 동네다.

급수관 설치 외에 13억원을 들여 농촌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한다.

동산면 조양4리 외 2개소, 북산면 추전리 외 1개소, 서면 덕두원1리 외 1개소, 남면 박암리 윗박암, 남산면 백양2리 샛골이 대상지이다.

〈수도과 ☎250-4970〉

만 65~70세 노인, 폐렴 무료 예방접종

3월 3일부터 동별 접종, 읍·면 지역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춘천시보건소는 올해 만 65~70세 노인을 대상으로 3월 3일 ~ 13일까지 폐렴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

동 지역은 지정된 날짜에 보건소 옆 시민복지회관에서, 읍 · 면 지역은 해당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한다.

평생 1회만 접종하면 되므로 만 65세 이후 병 · 의원 등에서 접종받은 사람은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별 일정〉 △3월 3일 = 교동, 약사명동(오전), 조운동, 근화동(오후) △3월 4일 = 소양동(오전), 후평1동(오후) △3월 5일 = 후평2동(오전), 후평3동(오후) △3월 6일 = 효자1 · 3동(오전), 효자2동(오후) △3월 10일 = 석사동 △3월 11일 = 퇴계동 △3월 12일 = 강남동 △3월 13일 = 신사우동이다. 신북읍보건지소는 7일이다.



지정 날짜에 접종하지 못하면 3월 14일 이후 오후1시~4시까지 보건소에서 연중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

〈보건운영과 ☎250-3694, 4600〉

콩 보급종자 신청받습니다

3월 12일까지, 공급은 4월 1일~5월 10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콩 보급종자를 신청받는다. 보급종은 대원, 대풍, 태광, 청아 등 4개 품종이며 공급가격은 일반콩 5kg당 2만5,090원이다.

신청은 3월 12일까지 읍 ·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공급은 4월 1일~5월 10일 지역농협을 통해 배송 예정이다.

전국 잔량이 있는 품종에 한해 선착순 추가신청(3월 21일~4월 10일)을 받는다.

〈유통원예과 ☎250-4736〉

춘천시민 남이섬 입장료 2월 4일부터 특별할인

당분간 60% 할인된 4천원에 입장



춘천시민은 2월 4일부터 남이섬을 할인된 가격에 입장할 수 있다. 지역 대표 관광지인 ㈜남이섬(대표 강우현)은 춘천시민에게 입장료를 특별 할인(60%) 해주고 있다.

신용철 시장 권한대행은 2월 4일 남이섬을 방문, ㈜남이섬 측에 입장료 할인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할인혜택은 남이섬이 지역사회 협력 차원에서 시민들의 그간 요청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남이섬 측은 당분간 4천원에 입장시키고 향후 5천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관광과 ☎250-3063〉

일본뇌염 생백신 무료 예방접종

만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 2월 10일부터

2001년 이후 출생 어린이 중 접종 대상자는 일본뇌염 생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춘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 일본뇌염 생백신이 추가됐다. 2월 10일부터 보건소와 관내 26개소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사백신의 경우 5회, 생백신의 경우 2회 접종으로 기초접종이 완료되므로 대상자의 요구에 맞게 접종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보건소는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시에는 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운영과 ☎250-4594 예방접종실 ☎250-3694, 4600〉

전통시장 홈패션 강좌 "솜씨도 익히고 장도 보고"

"솜씨도 익히고 장도 보세요."

제일종합시장(대표 김윤성)이 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고객을 위한 솜씨 나눔터를 마련, 관심을 끌고 있다. 3월부터 시민 홈패션 강좌를 열기로 한 것.

교육은 시장에서 점포(정윤경 홈패션)를 운영하는 상인이 맡고, 시장 측은 시장 내 2층 휴게실을 제공한다.

고객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감안, 관심 높은 홈패션 기술을 가르쳐주고 시장을 오가며 장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여성 유효인력에게 창업이나 자신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겠다는 것.

최근에 인터넷 카페(cafe.daum.net/chuncheonjeil)도 개설했다.

수강생은 5개 과목에 각 10명씩이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강좌는 3월 4일부터 시작한다. 접수는 28일까지 정윤경 홈패션(☎254-3925)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한다.

12주 강좌에 수강료 6만원. 재봉틀다루기만 6주 3만원이다.

〈과목〉△재봉틀 다루기(금요일 10시~11시30분) △신생아용품 만들기(목요일 오후1시~2시30분) △아이 옷 만들기(수요일 10시~11시30분) △어른 옷 만들기(수요일 오후 1시~2시30분 △홈패션(목요일 10시~11시30분)이다.

〈약사명동 ☎250-3614〉〈경제과 ☎250-3900〉



창촌농공단지에 있는 (주)자이월드 전경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탄생한 재미난 제품들



세계 최초 실리콘 미세모 진동 칫솔

아들 연필 쥔 모습 보고 만들어 낸 연필 교정기 '핑거캡'

창촌농공단지에 위치한 자이월드(대표 김영빈 · 43)는 재미난 회사다.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도 재밌지만 상품보다 더 흥미를 끄는 것은 김영빈 대표다. 4년 전, 김 대표는 자유분방한 초등학생 아들이 중지와 약지 사이에 연필을 쥐고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걸 교정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골판지로 연필 교정기를 만들어 주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내친김에 연필 교정기를 발명경진대회에 출품했는데, 덜컥 상을 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핑거캡'이란 연필 교정기다.

아들의 연필 잡는 자세를 고쳐주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상품이 되고 돈이 되는 과정에 재미를 느낀 김 대표는 내친김에 특허 관련 공부를 했다. 그리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대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지역을 찾았고, 사업 시작 7개월 만인 2011년 2월, 춘천에 새 둥지를 틀었다.

세계 최초 실리콘 미세모 진동 칫솔, 해외까지 소문나다

사업지를 옮기고 연이어 좋은 일들이 생겼다. '핑거캡'이 특허청 공공구매 우선 구매제품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김 대표는 발에 비해 치아는 마사지를 받을 곳이 없고, 치주질환도 흔하다는 사실을 알고 아프지 않고 피도 안 나면서 잇몸을 튼튼하게 해줄 세계 최초 '실리콘 미세모 진동 칫솔'을 만들었다. 이 제품으로 김 대표는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금상을, 2012년 대한민국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을 수상했다.



국내 치과에서도 자이월드의 진동칫솔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일본 · 중국 · 대만 등 기존의 해외 시장 외에 지난해 가을엔 새롭게 인도네시아에 수출의 길이 열리기도 했다.

실리콘과 미세모가 각각 교체 가능한 진동칫솔을 가지고 호기심 많은 김 대표는 미세모를 빼고 실리콘만 있는 상태에서 진동칫솔을 얼굴에 대보았다. 일정한 저자극의 진동을 통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김 대표는 새 제품 개발에 들어갔고, 그 결과 나온 제품이 교체형 실리콘 진동 얼굴마사지기다.

휴대가 간편한 손가락 칫솔과 알약 형태의 일회용 치약

2013년 5월엔 손가락 칫솔과 타블렛 치약으로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또다시 금상을 수상했다. 손가락 칫솔 탄생 배경은 이렇다. 군인들이 군장을 꾸릴 때 긴 칫솔도 부담돼 반으로 부러뜨린다는 말이 김 대표의 특허 욕구에 불을 지폈다. 등산, 낚시, 캠핑용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하고 다닐 손가락 칫솔과 일회용으로 포장한 알약 형태의 타블렛 치약은 올 3월 출시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현대자동차, 삼성생명 등에서 선주문을 받아놓은 상태다. 아이디어가 빛나는 새로운 제품이 앞으로 특판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기대된다.



김영빈 대표

섬유유연제 시장 30% 점유한 '포프랑'과 기업인수합병

㈜자이월드는 지난해 중반부터 사업에 탄력이 붙기 시작해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대상 수상에 이어 7월엔 2013 여성경제인의 날, 전국 400개 기업 중 4개의 전시업체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까지 찾아왔다. 2009년 섬유유연제 시장 30%를 점유했던 브랜드 '포프랑'과 기업인수합병을 한 것이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포프랑의 전 대표는 '누구에게 넘기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김영빈 대표를 찾아왔고, 자이월드는 그해 8월부터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주방세제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프랑스 향을 사용하고, 무방부제인데다 특수이온 헹굼 처리방식으로 거품과 세제 찌꺼기까지 싹 빠져 피부 보호효과도 탁월하다. 지난해 지마켓과 옥션에서 특판을 진행하면서 주부들에게 포프랑이란 브랜드를 강하게 각인시켰다.

만 3년 만에 매출액 26억원 달성

3월이면 거두농공단지에 공장 신축을 시작할 자이월드의 지난해 매출액은 26억원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고 설립된 지 만 3년여 만에 이룬 성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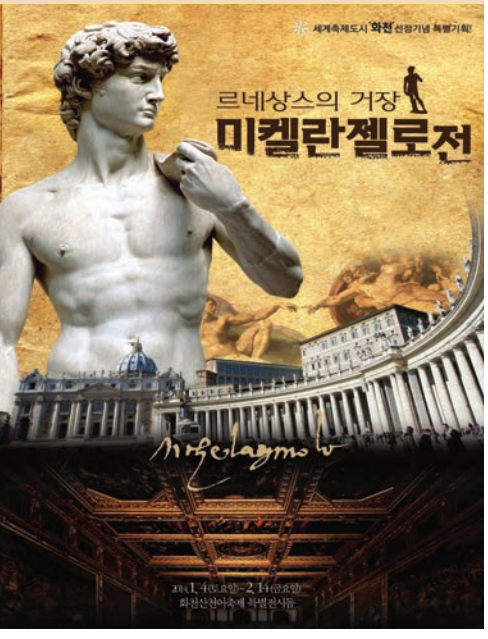
김 대표는 어린 시절 책을 읽으면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며 역할 바꾸는 놀이를 즐겼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 사소한 것도 챙기는 습관과 순간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다. 조만간 출시될 제품 중에는 무선통신 기능을 탑재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열 깔창도 있다. 생활 속의 사소한 불편과 필요를 놓치지 않는 재주, 한 번 꽂히면 끝장을 봐야하는 성격, 거기에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내는 김 대표의 열정으로 앞으로도 자이월드를 통해 기발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 같다. ☎ 070-7864-7070~1

김희은 (본지 상임위원)

한국과 이탈리아 문화교류 물꼬를 트다



남대현
· 다빈치 코리아 대표
·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장



등산 잡지 '사람과 산' 유럽 특파원으로 로마와 인연 맺다

남대현이란 이름이 춘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게 된 계기는 화천에서 열린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전' 때문이 아니었을까? 대리석 및 그 시대의 주물 원본으로 뜬 실제 크기의 조각 작품들을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니.

춘천이 고향인 남대현(48) 대표와 로마와의 인연은 남 대표가 한국의 등산 전문잡지 '사람과 산' 유럽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맺어졌다. 그는 60일 간의 알프스산맥 종주 중 눈사태로 300m 아래로 추락하는 큰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인생은 새옹지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주말마다 미사를 드리면서 맺게 된 인연으로 바티칸 교황청 사진작가가 되었고, 5년 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죽음과 함께 그 일을 그만두었다.

로마에 춘천의 소나무 화가, 우안 최영식 화백 소개

남대현 대표가 새롭게 관심을 돌린 곳이 문화예술계였다. 로마에서 기자로서뿐 아니라 단테학회, 다빈치학회 활동을 하며 다양한 인맥을 쌓아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때만 해도 로마국립동양예술박물관에 한국관이 없었다. 한국관을 열기 전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을 먼저 홍보하기로 하자 물망에 올라있던 한국의 유명한 다섯 명의 작가 외에 남 대표는 한국에서조차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춘천의 소나무 화가, 우안 최영식 화백을 추천했다. 로마 학예사들은 최 화백의 힘찬 기상이 서린 소나무 그림을 보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한 달 후, 로마에선 최영식 화백의 초대전이 열렸고 현지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최 화백의 '소나무여 푸르구나' 작품은 로마국립동양예술박물관에 한국화가 작품으로는 최초로 영구 소장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미켈란젤로전, 서울에서 다시 볼 수 있다 (4.11 ~ 6.22)

이후로 본격적인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 교류가 시작되어 남 대표는 2009, 2010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전'과 2012년 서울 용산 전쟁박물관에서 '영원한 도시 로마전'을 기획하게 되었다. 다빈치코리아의 대표이며 제주도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장인 남대현 대표에겐 꿈이 있다.

고향인 춘천에 피노키오 이야기를 테마화한 '르네상스 피노키오 빌리지'를 만드는 일이다. 다빈치 박물관, 미켈란젤로의 미술관과 갈릴레이의 과학관 등을 다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테마파크다. 이 일은 지금 조용히 진행 중에 있다.

반가운 소식이 있다. 체험이 추가된 업그레이드된 미켈란젤로전을 4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전시실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김희은 (본지 상임위원)

"우리고장의 역사 알고 자긍심이 생겼어요"

동아리 활동 1년만에 '문화유산답사기' 책 펴내



지역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 위해 만들어져

남산면에 위치한 강촌은 대학생들의 MT장소로, 청춘과 낭만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강촌을 깊이 들여다보면 효자, 효부와 의병장의 마을이며 등선폭포와 구곡폭포와 같은 지역의 문화와 자연 유산이 넘쳐나는 곳이다.

창촌중학교의 차용만 교장은 지난해 봄,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창촌중 8명의 학생과 창촌중 출신인 한희민 강촌문화마당 회장과 함께 '지역사회문화연구동아리'를 만들었다.

8명의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여 답사를 진행했다. 답사에 앞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답사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역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은 앎으로 발전했고, 앎을 통해 자신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난 것은 큰 수확이었다.

이들이 발품을 팔며 연구한 결과가 최근 '강촌과 함께 한 문화유산답사기'란 책으로 나왔다.

"지명 하나하나가 우리의 소중한 역사"

초대 회장이었던 3학년 황효경 학생은 "첫 답사를 한 뒤, 우리 지역에 이런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뻤다"고 말했다. 차기 회장인 유형철 군은 "우리 지역에 있는 남산교회를 한서 남궁억 선생이 만들고, 이 교회에서 배선학당을 만들어 한글을 가르치며 농촌 계몽에 앞장섰다"며 "배선학당의 영향으로 남산초와 창촌중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다.

김연희 학생은 "우리 고장의 지명 유래에 대해 알아본 결과 마을 이름 하나하나가 여기 살던 사람들의 숨결과 삶과 자연이 만나 서서히 만들어진 우리의 소중한 역사란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을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다"고 했다.

학생들의 바람이 있다면 이들의 작은 행동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지역주민들도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 262-8119

김희은 (본지 상임위원)

국사봉

김남덕 (본지 상임위원)

고종 승하 슬픔을 삼키던 곳

퇴계동 산43번지에 위치한 낮은 봉우리의 국사봉은 퇴계동 이안·그린·한진·현대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이다.

온의동 닭갈비 거리에서 퇴계동 홈플러스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은 나빠졌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1919년 초 제국주의 일본에 강제 침탈당한 우리나라는 고종의 국상을 당하였으나 마음 놓고 곡(哭)조차 할 수 없었다. 당시 춘천 유림들은 일제 경찰의 눈을 피해 산 정상에 올라 임금의 승하를 애도하고 망제를 올리는 등 나라 잃은 슬픔과 울분을 토했다. 바로 그곳이 국사봉이다.

국사봉은 위치적으로 춘천시내에서 남쪽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산봉우리로 지금은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있지만 일제강점기는 논과 밭, 숲을 지나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곳에 모인 춘천 선비들은 서쪽 하늘 삼악산 방향을 향해 절을 하고 제를 지내는 등 시문을 지어 조문의 뜻을 남겼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사봉 산책로

다양한 코스로 오르는 산

정상까지 왕복하는 데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

등산로는 이안아파트 106동 시작 코스와 그린·한진·현대아파트에서 출발하는 코스 그리고 정족리 코스 등 다양하다.

이안아파트 106동 방향에서 시작된 길은 아파트 울타리를 벗어나면 먼저 왼쪽으로 대룡산 자락과 아파트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몇 발자국 옮기다 보면 이 지역 주민들이 가꾸는 텃밭이 나온다. 이 산책로는 농부가 심은 작물이 계절별로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덤도 준다.

등산로 중간에 도로가 뚫리면서 국사봉으로 이어지는 길이 없어지고 대신 육교가 설치돼 등반객을 안내한다.

육교를 건너자마자 리기다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다. 숲 사이로 이어진 등산로는 지친 도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준다.

리키다소나무는 원산지가 북미산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약 1910년대 초다.

아카시와 같은 시기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화력이 좋아 땔감용으로 인기를 얻던 나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연번식이 되지 않는다. 나무 아래를 살펴보면 후계목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혹 보이는 작은 오솔길은 걷는 맛을 더 풍족하게 해준다.

국사봉 코스는 많은 시민에게 산책로로 애용되고 있으며 등산로가 잘 정비돼 있어 수월하게 걸을 수 있다.

정상엔 국사봉 망제탑

굴참나무가 보일 때면 오르막이 시작된다. 숨을 참아가며 오르는가 싶으면 벌써 정상이다.

정상에는 운동기구와 함께 1992년 설치한 국사봉 망제탑이 있다.

안마산, 드름산, 향로산이 국사봉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다. 라데나골프장 그린도 보인다.

한진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오르는 곳 주소는 백석골 길 4로 동심삐아제어린이집 앞에서 시작된다.



리키다 소나무 군락지

입구부터 잣나무 군락지가 펼쳐진다.
피톤치드(Phytoncide)라는 물질을 가장 많이 뿜어내는 나무가 잣나무를 비롯한 침엽수 종이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병원균·해충·곰팡이에 저항하려고 내뿜거나 분비하는 물질로, 삼림욕을 통해 피톤치드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장과 심폐기능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살균물질인 피톤치드는 아토피성 피부질환에도 효과를 보여 많은 사람이 숲을 찾기도 한다.
삼림욕 효과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낮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 숲을 찾아야 한다. 가장 더운 시간대에 침엽수 숲에 들어가면 삼림욕의 효과도 높이고 더위도 피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나무와 진달래

잣나무 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소나무와 함께 진달래가 등산로 변으로 펼쳐져 있다.
몇 해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조사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소나무와 진달래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나무로 선정됐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나가는 시민들 손에 진달래 가지가 들려 있다. 집안에서 먼저 봄을 느끼려고 한두 가지 꺾어 가는 모양이다. 그냥 두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볼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느껴져 등산로 주변 말고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한적한 곳의 나뭇가지를 꺾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나무를 뒤로하고 오르막이 시작된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이내 정상에 도착한다.
봄이 되면 이 길을 걷고 싶다. 연분홍빛으로 물든 산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된다.
입춘이 지났다. 연분홍빛 진달래의 설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



대우이안아파트 106동에서 본 시내풍경



소양로 뒤편 골목. 한때는 춘천의 명동이었으나 시대에 밀려 삭은 건물이 지금을 지킨다

시대 비껴 간 후미진 풍경 "그대로가 세트장"

봄내 편집실

요란한 거리, 음습한 안개, 생선냄새, '코피'향…

그땐 몰랐다. 밤하늘을 가르는 푸른빛의 정체를. 소풍날이면 비가 오고,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가 흘리는 눈물 때문이라는 아이들의 '괴담'이 전해지는 학교에 다녔던 터라, 그 푸른빛은 마치 비단구렁이가 하늘로 오르려 용을 쓰는 환영으로 연결되곤 했다.

작가 한수산도 그 빛을 보았는가 보다. '하늘 한쪽에서 미군부대의 비행장에서 쏘아 올리는 서치라이트가 푸르게 어둠을 핥으며 지나가곤 했다.'〈안개시정거리〉

그랬다. 꼬맹이에게 '화장실 귀신'격이었던 그 이상한 빛은 소양로 캠프페이지에서 항로를 유도하는 표식이었다.

6.25전쟁 때 들어선 미군부대는 반세기 훌쩍 넘게, 이 도시와 사람을 지배했다. 부대를 끼고 있는 소양로의 시간은 병영에 맞춰져 있었다. 어둑새벽 미군들의 '구보 송'이 동네를 깨웠고,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는 오후 6시를 알렸다.

기지촌은 어슬녘 또 다른 하루를 맞았다. 뒷골목, 요란하게 치장한 양키 홀은 색등을 켜고 거리에 요상한 음악을 쏟아냈다. 등짝을 허옇게 드러낸 '몹쓸 패션'의 양공주와 켄터기 혹은 앨라배마 출신의 얼룩무늬들. 한낮의 황색거리를 그들만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었다. 거리는 비틀거렸고 이방(異邦)의 입맞춤은 뒷길로 이어졌다.

황색거리, 뒷골목 라스베이거스…
이방(異邦) 문화 용광로

지금의 소양로는 재개발사업으로 한창 성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지질이 힘들었던 시절의 헌데가 듬성듬성 남아 있다. 1970년대 초 소양로. 한수산은 욕망의 멜팅포트 이면을 이렇게 기록했다. '겨울이면 연탄재가 쌓이고 고무신짝만한 쥐들이 얼어 죽어 있는 골목길, 찔끔거리는 수돗물 때문에 밤에 물을 받느라 잠을 설쳐야 하는 산동네.'

춘천사람들은 기억한다. 서부시장, 니나노집의 젓가락 소리와 부르너 발터의 베토벤 교향곡이 함께 판매되던 그 시대를, '끝순이' 아버지의 고꾸라진 목청이 통금을 알리던 시절을… 삶의 옹이가 굳은 그 때 이야기가 드라마 '첫사랑'(1997)이다. 자식을 위해 지게짐을 졌던 아부지, 됫

박 쌀을 꾸러 부끄럽게 옆집 대문을 열던 어머니의 뒤웅박 한숨, 동생을 위해 날품이나 미싱을 돌려야 했던 형과 누나. 그래도 가족이 있어 웃을 수 있었다. 거기다 아렴풋 남은 그 아이의 다이알 비누냄새.

청춘 스타였던 최수종, 이승연, 훗날 이 골목에서 다시 첫사랑을 엮는(겨울연가) 배용준, 최지우가 그들의 아버지 시대를 살았다. '첫사랑'은 늘 그렇지만, 이뤄지지 못한 사랑 이야기이다. 어린 시절의 끌림, 집안의 차이와 부모의 반대, 그래도 집요한 사랑, 사회적 성취를 위해 자식의 연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아비, 복수, 예정된 이별...



찬혁과 효경이 그림을 그리던 신동 올미숲. 뒤편 기와가마는 지금은 없다

근대 춘천의 잔영 품은 '기와집골' 촬영지로 각광

춘천의 곳곳이 영상에 담겼다. 주 무대는 소양로 기와집골.

저런 곳이 지금도 있나, 할 정도로 '조국 근대화 시대', 개발에서 비껴난 후미진 인생과 삭은 풍경을, 본디 그대로 보여줬다.

어느 정도 먹고살게 된 1990년대 방송됐으니, 시청자들은 첫사랑의 통속보다 소양로가 보여준 그 공간적 사실성(기억의 동질감)에 더 공감했을 것이다.

이후, 있는 그대로가 세트인 소양로 일대는 시대물을 다루는 영상물에 속속 속살을 내보이며 영화의 거리가 된다. 주인공 찬우(최수종) 가족이 살던 집은 춘천을 한류 도시로 만든 드라마 '겨울연가' 준상의 집 바로 아래 있었다. 예전, 강원도청 모수물고개에서 소양로2가로 내려가는 좁은 골목길이다. 찬우네 집은 재개발사업으로 없어졌다.

비누 냄새로 다가오던 첫사랑, 지금의 향기는?

재삼, 처음 경험했던 낯선 감정의 정체, 첫사랑을 따져본다. 첫사랑은 왜 대부분 마지막 인사로 남는 걸까. 어떤 경우는 비극을 결말로 하는 걸까. '로미오와 줄리엣', 한참 거슬러 바빌로니아 시대 '피라모스와 티스베' 신화의 유전일까.

'저 칡이나 캐러 갈까, 하루를 못 보아도, 석 달이나 된 듯하네/ 저 흰쑥 캐러 갈까, 하루를 못 보아도 세 번째 가을이 된 듯 하네/ 저 약쑥이나 캐러 갈까, 하루를 못 보아도 삼 년이나 된 듯하네'〈詩經, 칡이나 캐러 갈까〉 일일(一日)이 여삼추(如三秋)같게 그리든 님.

영화 '봄날은 간다'의 명대사.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시경(詩經)은 이어, '웬수'가 된 어느 인연의 후회를 전한다.

'산에는 작은 나무 있고, 진펄에는 연꽃이 피었건마는 멋있는 자도(미남)를 만나지 못하고 미치광이를 만났단 말인가'〈작은 나무〉

사랑은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보자. 내가 변할 수 있듯이,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임 또한 언제든 그 동의를 철회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사랑은 원리적으로는 비극을 잠재하고 있다. 상대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한국 영화 특선의 단골 대사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첫사랑' 줄거리

찬우(배용준)는 같은 반 효경(이승연)을 짝사랑한다.
하지만 효경은 찬우 형 찬혁(최수종)을 좋아한다.
효경의 부모는 가난한 찬혁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
찬혁은 동생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미술대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 공장에 취직한다.
찬우는 명문대 법대에 합격해 식구가 모두 서울로 이사한다. 효경은 찬혁을 수소문해 다시 만나고, 이를 안 효경 부모는 찬혁이 교통사고를 당하도록 청부한다.
효경은 찬혁이 죽은 것으로 알고 유학을 떠난다.
효경 부모의 음모를 알게 된 찬우는 공부를 그만두고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한다.
찬혁은 기적적으로 깨어나지만 불구가 된다.
찬우는 효경의 아버지 사업체를 부도내고 충격을 받는 효경 아버지는 죽는다.
모든 것을 알게 된 효경이 파리로 떠나는 날, 찬혁은 공중전화로 이별을 나눈다.
지난 일은 추억으로만 생각하자며...

봉사가 일상이 되어버린 효자3동 강금옥 통장


강금옥 효자3동 통장

우울증 치료 위해 사회활동 시작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강금옥(61) 통장은 30대 후반부터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우울증 때문에 찾아간 병원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라"는 의사의 얘기를 듣자마자 시작한 부녀회 활동과 반장 일에 이어 10년 전부턴 효자3동 9통장을 하고 있다.

또한 효자3동 통장협의회장이면서 봉사단장 일도 함께 맡고 있는데 효자3동의 11명의 통장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봉사단 일도 함께 하고 있다. 팔호광장에서 강원대 후문 근처의 효자3동은 거의 개인주택이라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과 수급가정들이 많이 있어 통장의 일이란 게 대부분 봉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 통장은 봉사단들과 함께 평소 열심히 모은 헌옷 등을 손질해 자치센터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또 병이나 신문 등을 모아 판 돈과 헌옷 판매 수익금 등으로 해마다 동춘천초등학교 학생 5명에게 1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동네 독거노인들도 돕고 있다.

"통장하면서 더 젊고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강 통장에겐 특히 잊혀지지 않는 봉사들이 있다. 몇 해 전, 팔미리 산 밑에 봉사단원들과 함께 고구마를 심었는데 멧돼지가 고구마 밭을 다 뒤집어 놓았다. 힘들게 정리해 놓은 밭을 또다시 멧돼지들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다시 밭을 정리하는 우여곡절 끝에 고구마를 수확했다. 고구마 한 상자씩을 독거노인들에게 전해 드렸는데, 고생 끝에 얻은 고구마라 어찌나 기쁘던지 그 상자들이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또 하나는 몇 해 전, 인제에 큰 수해가 났을 때다. 부인이 일본 여성인 다문화 가정이 있었는데 연년생으로 5명의 아이들이 있는 집이 수해로 지붕만 남긴 채 다 잠겨 버렸다. 인분 냄새 나는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에서부터 감자도 캐주고, 아이들이 학교 입학할 땐 옷과 학용품, 책가방을 사갔다. 명절이면 떡과 선물 싸들고 가고 했더니 아이들이 봉사 온 사람들을 '이모'라 불렀다.

한두 번으로 끝낸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도와주었기에 아직까지도 특별한 봉사로 기억되고 있다.

20여 년 동안 남을 도우며 사회활동 하고 있는 강금옥 통장은 "이런 사회활동을 안 했으면 몸도 아프고 무기력하게 살았을 텐데, 통장일 하면서 더 젊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해빙기 재난예방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 ☎02-2100-5286, 춘천시 안전총괄과 ☎250-4295)





소방방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빙기에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 축대 · 옹벽, 절개지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생활 주변에서 해빙기에 붕괴 등 위험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 주변의 위험 지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우리 집 주변의 지하굴착 공사장에 추락방지 및 접근 금지 등을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지역에는 들어가지 맙시다.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가까운 읍사무소 및 주민센터나 시 · 군 · 구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 얼음낚시 등은 가급적 자제하세요

해빙기가 되면 강이나 호수의 얼음은 가운데로 갈수록 얇아지고, 아래쪽부터 녹기시작하여 겉으로는 두께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얼음낚시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빙기 가스사고에 대비하세요

해빙기에는 가정에서 가스시설의 이완 등에 따른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가스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배관과 호스, 호스와 연소기의 연결부위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점검을 받읍시다.

○ 해빙기 등산 더 철저히 준비하세요

해빙기의 산은 낮과 밤의 큰 기온차로 습기를 머금은 바위와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미끄러울 뿐 아니라 낙석위험이 높음으로 계곡이나 바위 능선을 피하고 붕괴 위험지역의 출입은 삼갑시다. 산 위는 기온이 아직 낮기 때문에 보온성이 좋은 옷을 착용하고 평소보다 등산코스를 짧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의 사진이 주는

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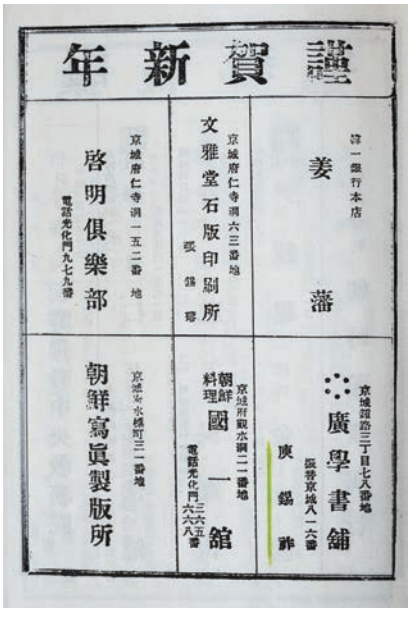
유용태 강원고미술연합회 회장

팔순이 넘은 나이에 들어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날로 커져 간다. 선고(先考·부친)인 성원 유석조(星園 庾錫祚)의 유품 중 빛바랜 흑백사진이 있다.

선고는 휘문고와 보성전문(지금의 고려대)을 수학했다. 고미술품과 민속품에 관심을 가졌으며 사진촬영에도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었다. 1910년대 말부터 광학서포라는 출판사와 인연을 맺고 글을 써오다가 1922년 초 일제의 우리나라 출판사에 대한 간섭과 탄압이 심해지고 재정상의 어려움마저 겹쳐 출판사를 매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고(祖考·조부)께 간청해 인수하였다. 인수 후 '소년소녀교육창가집' 등 50여 권의 서적을 출간했다. 당시 광학서포는 종로통삼정목(鍾路通三丁目)에 위치했으며 인수금으로는 길에서 벗어난 일반 기와집 3채 값을 지불했다고 한다. 춘천 출신으로 한국 잡지 언론의 선구자로 열려진 청오(靑吾) 차상찬 선생이 창간한 개벽지에도 신년 축하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 장사동 중곡감리교회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중곡야학원을 열어 언문, 수학, 수신, 창가 등을 가르쳐 2년 동안 15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고전수집연구뿐 아니라 동요작가, 출판인, 자동차 및 철강산업에도 선구적 역할을 한 분이다.

1928년경 광학서포를 운영하던 시기에 조부가 기념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선고부터 시작된 화폐를 비롯한 민속품 수집은 가풍처럼 형님, 나, 아들과 손자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개벽지에 실린 광고

※ 시민 여러분의 '받은 편지함' 사연을 받습니다.
다양한 작품 (시, 시조, 서예, 그림) 외에 특별한 사연이 담긴 편지, 엽서, 사진, 물건 등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ccc3@korea.kr 또는 sarangeun@korea.kr로 보내시는 분의 이름, 나이,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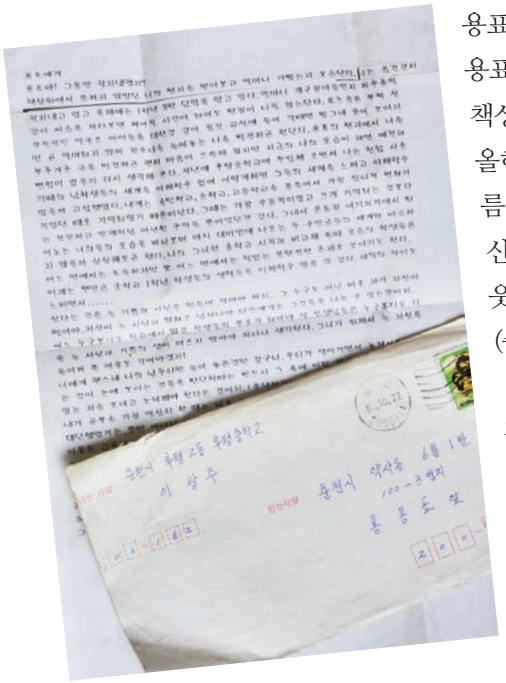
편지사연

20년 전 고등학교를 진학한 제자의 편지를 받고 선생님이 보낸 편지다.
솔직한 심정으로 현재 교편생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묻어난다. 글씨체가 컴퓨터를 이용해 한글 작업을 하던 1990년대 초창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제자에게 답장을 보낸 선생님은 편지봉투에서 보듯 이광주 선생님으로 현재 인제 신남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다.

또한 사랑으로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현재 동북지방통계청 춘천사무소 홍용표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20년 전의 선생님 편지

감수성 예민한 제자의 마음 어루만지는 사랑



용표에게

용표야! 그동안 잘 지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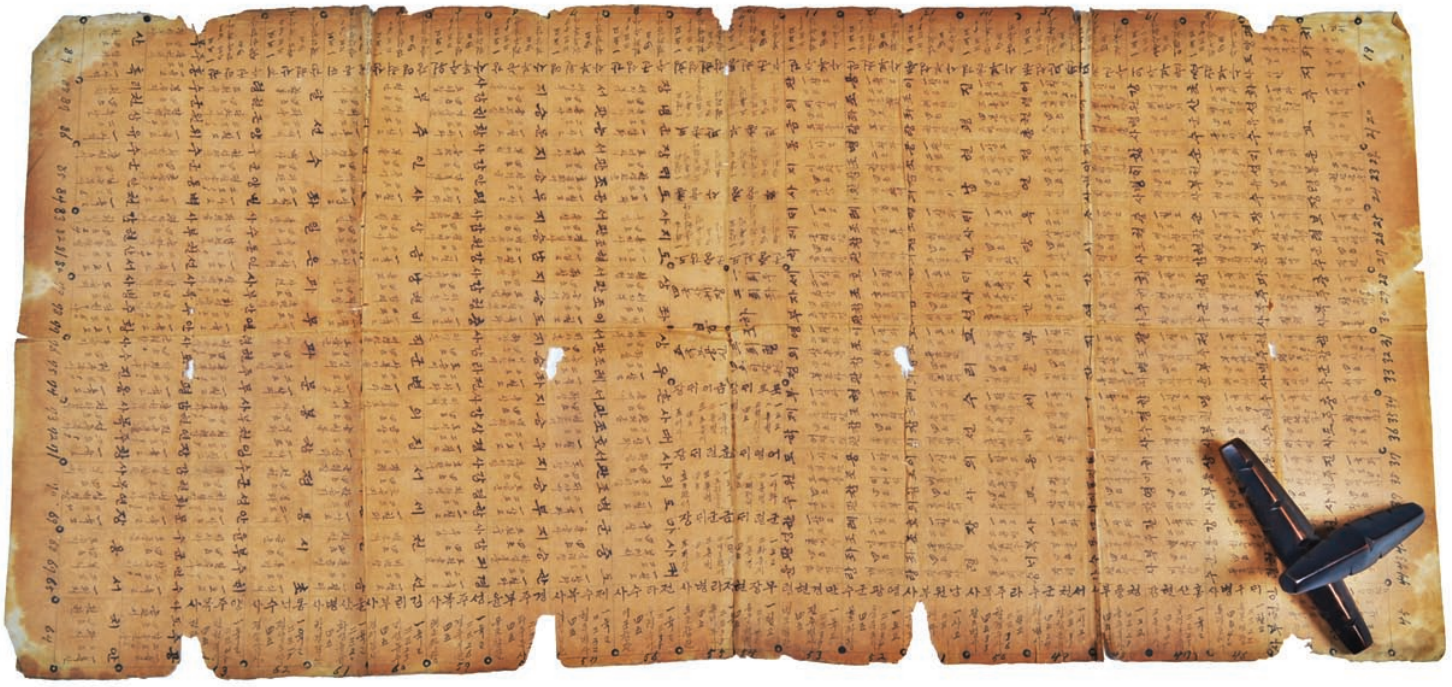
책상 위에서 뜻하지 않았던 너의 편지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올해는 일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 얼마나 개구쟁이들인지 하루 종일 같이 씨름을 하다 보면 헤어질 시간이 되어도 판정이 나질 않는단다. 요즈음은 부쩍 신경질적인 얼굴로 아이들을 대한 것 같아 짐짓 교실에 들어갈 때면 빙그레 웃어 보이지만 곧 얼마 되지 않아 잔소리를 늘어놓는 나를 발견하곤 한단다. (중략)

작년에 후평중학교에 부임해 오면서 나는 한참 사춘기 때 남학생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세계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을까 고심했었다. 내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가장 심리적 변화가 적었던 때로 기억되었기 때문이란다.(중략)

나의 그러한 중학교 시절과 비교해 볼 때 요즘의 학생들은 어느 면에서는 조숙하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철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보이기도 한다. 이제는 웬만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생활들을 이해할수 있을 것 같다. 세월의 차이도 느끼면서 … (중략)

어느 누구보다도 학교에서 많은 학생의 부모가 되어야 할 선생님들은 누구보다도 더욱 늘 사랑과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아야 하리라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돌이켜 볼 여유도 가져야겠지! 너에게 괜스레 나의 넋두리만 늘어놓은 것만 같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그 속에 어떤 진실과 가치들이 숨겨있는지를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중략하고) 내가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한 때는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단다. 공부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었거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깊은 생각들도 그 무렵에 시작되었던 것 같다. 아무튼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감수성도 한참 예민할 때라 나의 성장기에 있어 하나의 전환기였단다. 너의 편지글 속에서 지금의 생활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 다른 선생님들 모두 다 안녕하시니 그에 대한 소식들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자. 아무쪼록 늘 자신을 다스리고 가꾸어 나가는 데 게으르지 않기를 바라며 항상 기쁨과 행복이 늘 너와 함께 하기를 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1992.10.19.



람승도(覽勝圖) 놀이

김길소 (한국전래오락연구소장)



유람과 풍류 즐겼던 도판놀이

전통사회는 이동수단이 무척 열악했었다. 걷거나 우마차를 타는 게 고작이었다. 강물이 흐르는 춘천은 배를 탈 수도 있었지만 먼거리 여행을 떠나기가 그만큼 어렵고 힘이 들었다. 유람에 나섰다고 해야 집 주변을 맴도는 게 고작이었다.

이 시절 선조들은 놀이를 통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전국 유람과 풍류를 즐겼다. 바로 람승도(覽勝圖) 놀이다.

람(覽)자는 "두루 보다", 승(勝)자는 "지세나 경기가 좋다"이니 "경치 좋은 곳을 두루 섭렵하는 도표"라는 뜻이 된다.

말판에 쓴 명소, 끗수 따라 누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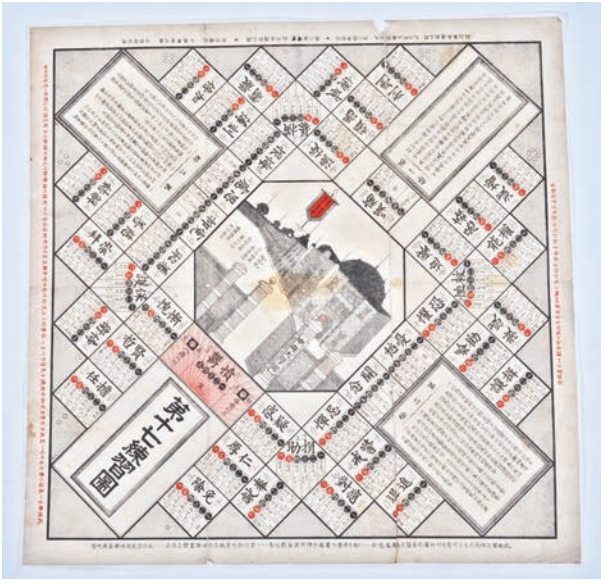
누가 언제부터 만들어 놀기 시작했는지 분명치 않다. 하지만 말판에 적혀 있는 지명이나 놀이도구와 방법으로 미루어 민속학자들은 삼국시대부터 즐겨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람승도 놀이를 즐기려면 말과 말판 숫자팽이(윤목·輪木)가 있어야 한다. 전통놀이판인 말판은 1m 남짓한 장방형 종이에다 전국의 지명과 명승지를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거리순으로 꽉 차게 써 놓는다.

그리고 지명과 명승지 밑에는 1에서 6까지의 숫자와 함께 숫자팽이를 굴려 나온 끗수에 따라 옮겨가야 할 방향을 명시해 놓았다. 이렇게 해놓고 출발점인 서울 숭례문을 떠나 말판을 한 바퀴 돌아 먼저 한양에 있는 홍인문으로 들어오면 이기는 것으로 짜였다. 평범하게 끗수에 따라 말을 움직이는 것이 싱거워 놀이꾼들에게는 시작하기 전에 각기 다른 신분을 부여한다.

1에서 6까지의 숫자에 맞춰 시인, 한량(무사), 미인, 화상, 승려, 농부 등 여섯 가지 직분을 갖는다. 그리고 그 직분에 따라 특권을 누린다. 가령 시인인 사람이 평양 연관정에 다다르면 시인의 전설이 많은 고장이어서 그때그때 정한 규칙에 따라 특권을 누렸다.

이뿐만 아니다. 승려(화상)는 미인이 먼저가 있는 곳은 돌아가야 하고 미인이 승려가 있는 곳을 지나려면 다음에 얻은 수를 미인에게 주어 먼저 보내야 지날 수 있었다. 또 울릉도나 제주 한라산을 지나 회오리 바람을 만나면 방향을 바꿔야 하고, '유배', '징소', '교전'이라는 칸을 만들어 함정에 빠지거나 뛰어넘어 변화무쌍한 희비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사대부 집안에서 널리 즐겨

아름다운 조국 강산의 이름과 풍토, 역사적인 배경을 놀이를 즐기면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짜였던 람승도 놀이의 정형은 시대가 바뀌고 변천하면서 놀이의 형식과 방식도 덩달아 달라졌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인쇄술의 발달로 장지에 필묵으로 깨알같이 그려 넣었던 놀이판이 천차만별로 시대상황을 담아냈다.

수많은 관직을 익히는 데 쓰였던 승경도 놀이와 함께 나랏말(한글)을 재미있게 놀이를 즐기면서 배우는 데도 쓰였다.

글줄이나 읽고 유복한 사대부의 집안 아이들일수록 식구들이 모여앉아 자주 이 놀이를 즐겼다. 이걸 보면 요즘처럼 아이들을 책상 앞에 앉혀놓고 "공부 좀 해라!"라고 닥달만 하는 부모보다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나를 알 수 있다. 여심(旅心)을 달래가면서 풍류를 즐겨 삶의 의욕을 북돋우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터득했던 일석삼조의 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인터넷에서 시시콜콜한 자료까지 모두 뽑아내 지구촌 어디라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요즘이고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부인의 지혜로 위기에서 벗어난 하인

이학주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장)

상상 초월 못된 상전

옛날 춘천에 착실한 비복과 못된 상전이 있었다. 못된 상전은 착한 비복을 언제나 엉뚱한 일로 부려먹기를 잘하였다.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더욱 못살게 부려먹는 악질 상전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복의 상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 상전이 워낙 부자인데다 그에게 조금만 잘못 보이면 얼토당토않은 행패로 보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좋은 말로 타이르면 오히려 타이르는 사람에게 보복을 했다. 그렇게 아랫사람이나 가난한 동네 사람들에게는 못되게 굴었으나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부자나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게 아첨을 일삼아 했다. 그러니 강한 사람에게는 굽실거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잘난 체하는 전형적인 아첨꾼이었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그 상전은 착한 비복을 골려먹는 것이 아주 재미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골려줄까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딸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해도 아주 기상천외한 것 같았다. 무릎을 치면서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한 자신을 칭찬하고 착한 비복을 불렀다.



한겨울 딸기 구하기

"요새 멍석딸기가 먹고 싶으니, 멍석딸기나 따와라."

하고 비복에게 말을 했다. 상전의 명을 받은 비복은 걱정이 태산이었다. 동지섣달 눈이 하얗게 덮인 한겨울에 어디 가서 산딸기를 따온단 말인가. 그렇다고 겨울철이라 산딸기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없다고 하면 상전의 가혹한 보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착한 비복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 그래 근심이 쌓여서 밥도 먹지 못하고 씻지도 않고 방구석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것을 본 비복의 부인이 남편에게

"왜 요즘은 씻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럽니까?"

하고 물었다. 비복은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마누라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일러스트 김태완

"상전이 이 겨울에 멍석딸기를 먹고 싶다고 따오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겠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비복의 부인이

"그러지 말고 얼른 밥 잡수시오. 내가 해결하겠소." 라고 했다.

겨울 뱀에 물린 하인

그래서 비복이 밥을 먹고 나니, 비복의 부인이 비복 대신 그 상전을 만나러 갔다. 상전 앞에 찾아간 비복의 부인을 보고, 그 상전은

"아니, 왜 네가 왔느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비복의 부인은 "아, 저 우리 남편은 멍석딸기를 따러 산에 갔다가 낭사를 당했습니다." 라고 했다. 낭사는 뱀에 물려 죽었다는 말이다. 그래 상전은 비복의 부인을 보고 말했다.

"요새, 한겨울인데 무슨 뱀이 있어 물겠느냐?" 그러자 비복의 부인은 "그럼 요새 무슨 산딸기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만 상전은 할 말을 잃었다.

비복의 부인은 그런 상전이 몹시 괘씸했다. 그래서 더 골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 집을 나오면서 "지가 가야겠습니다."하니, 상전은 "가라." 그래. 그래서 문지방에 한 다리를 넘겨다 놓고 한 다리는 방 안에 놓고는 "지가 나가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했다. 상전이 생각해 보니, 들어온다면 나갈 것이고, 나간다면 들어올 것이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엉뚱하게 "그러면 하루에 해가 몇 리를 가느냐?" 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여자가 "하루 60리밖에 못갑니다."했다.

그러자 상전은 "어째 60리밖에 못 가느냐?"라고 했다. 그러자 비복의 부인은 "여기는 골이 깊어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다들 60리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해는 이 산에서 떠서 저 산까지만 가니, 60리가 아니고 뭡니까?" 라고 했다.

하늘에 뜬 별은 마흔 개

그러자 상전은 "하늘에 뜬 별이 몇 개냐?"

라고 물었다. 비복의 부인은 "하늘에 뜬 별은 마흔 개밖에 안 됩니다. 마흔 개요."

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상전은 "아니, 밤하늘을 온통 메꾼 별이 어떻게 마흔 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하고 자신이 이겼다고 큰 소리를 하였다.

그러자 비복의 부인은

"여기 봐도 별이 스물스물, 저기 봐도 스물스물, 별이 많으면 스물스물 하니까 어느 사람이 별을 세요? 그러니 별은 마흔 개밖에 안 되지요?"

라고 했다. 그러자 그 상전은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러고 다시는 그 비복에게 허튼 일은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강원의 설화)

춘천의 3·1운동

의암 류인석유적지 교육홍보팀



일제강점기 때의 춘천농고

무단통치 항일 감정을 고양시켜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제는 강점 이후 헌병경찰제도와 같은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정치적 결사 · 집회를 금지하고, 한글신문을 폐간시켰으며, 일본어 교육을 통해 천황에 순응하는 신민 양성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무단통치는 우리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일제에 대한 분노와 항일투쟁의식을 고양시켰다. 고양된 항일투쟁의식이 3 · 1운동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국내외에서 발생하였다. 1919년 1월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의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전후 문제 처리의 방편으로 제시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및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몇몇 약소국가들이 독립을 할 수 있었다. 같은 달 국내에서는 당시 68세로 건강하였던 고종 황제가 붕어(崩御)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격문에는 독살설이 빠르게 퍼져나가 우리 민족의 항일 감정은 절정에 달하였다.

독립선언서는 전달되지 못해

3 · 1운동은 서울을 시작으로 평양 · 의주 · 원산 등지에서 동시에 일어났고, 계속해서 평안도 · 황해도 등 주요 도시로 번져나갔으며, 3월 10일을 전후해서는 남한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3 · 1운동 독립선언서는 강원도에 1919년 2월 28일 천도교 평강교구장 이태윤(李泰潤)에게 700매가 전달되었다. 이태윤은 춘천 · 양구 · 인제에 전달 책임을 맡은 임종한(林宗漢) · 신윤철(申允喆)에게 독립선언서 150매를 전달하였다. 이 두 사람은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기 위해 3월 4일 춘천에 늦게 잠입하였다. 당시 천도교 춘천교구는 동면 만천리에 있었고 이준용 교구장 댁은 서면 방동리, 윤도순 봉훈의 집은 동면 감정리에 있었기 때문에 세 곳 모두가 춘천시내에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춘천교구 누구와도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춘천읍내 사창고개에 있는 어느 여인숙에 투숙하였다가 순찰하던 일경에 발각되어 춘천 지역에서의 만세시위운동은 일단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춘천농업학교에서 만세운동 일어나

춘천에 독립선언서 전달이 실패하자 자발적으로 3 · 1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 시작은 3월 7일 춘천농업학교(현 춘천농공고등학교)에서였다.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서울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자, 춘천농업학교 5회 졸업생인 김병환(金炳煥)은 서울에서 3 · 1만세운동에 참가한 후, 3월 5일 춘천으로 내려왔다. 그는 김양환(金陽煥)의 집(옥천동 부근)에 찾아가 하숙 중인 김종식(金淙植)과 유재화(劉在和), 정만시(鄭萬時) 등에게 서울에서의 3 · 1운동 전개와 세계 정세를 설명하고 춘천농업학교에서도 독립만세운동에 전위대로 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종식, 유재화 등은 학교 기숙사에 모여 비밀리에 숙의한 끝에, 3월 7일 조회시간에 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계획은 사전에 누설되었다. 하지만 거사계획을 포기하지는 않았고, 3월 7일 아침 조회시간, 학생들은 운동장에 나와 일제히 만세를 부르면서 교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일제는 수비대 병력과 헌병 · 경찰 · 소방대까지 동원하여 학생 수보다 많은 무장 병력으로 학교를 포위하였다. 당시 춘천농업학교는 이전 춘천여자고등학교 자리에 위치하였는데, 인근에는 인가도 별로 없는 한산한 향교 골짜기였다. 교문을 나올 수 없게 된 학생들은 교내에서 계속 만세를 외치면서 수업을 거부하였다.

학교 당국은 3월 10일부터 1주일간 휴교 조치를 단행하고 기숙사 문을 닫아 학생들을 귀향토록 조처했다. 경찰들은 주동자로 지목된 2학년 정재화 · 김종식 · 김영한 · 정만시 · 김주경 등을 강원도 경찰부 고등계로 연행하여 배후자와 주동자를 가려내려 갖은 위협과 회유를 다하였지만 학생들은 모두 함구하고 저항하였다. 학부형인 춘천경찰서 한인 간부 서모 경부의 중재로 하루 만에 주동학생 모두가 석방되었으며 학교는 1주일 만에 휴교 조치를 풀고 정상적 수업으로 들어갔다. 춘천에서의 3 · 1운동을 선구적으로 일으켰던 춘천농업학교 학생들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항일민족독립운동을 일으켰다.

기억해야 하는 3 · 1절

을사늑약 이후 춘천에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관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강원도 지역을 관장하던 춘천헌병대가 설치되었고, 강원도 경무부를 맡고 있던 헌병대 본부가 있었으며 1919년 3월 12일부터는 독립운동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보병 79연대 1개 중대가 거주하였다. 도청 소재지인 춘천은 관공서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감시가 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족의 앞날을 위한 학생과 일반 백성의 의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들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희생정신을 3 · 1절을 맞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춘천농공고 내 항일운동기념탑〉



〈퇴계동 국사봉 망제탑〉 1919년 2월 고종의 국상에 많은 인사가 망제를 올리며 망국의 한을 토로하던 곳

참고문헌

이구용 · 김홍수 · 최창희, "춘천항일독립운동사", 춘천문화원, 1999
춘천백년사편집위원회, "춘천백년사", 춘천시, 1996
엄찬호, "춘천의 3 · 1운동에 대한 소고", 춘천문화원, 2007
춘천농업고등학교동창회," 춘농칠십오년의 맥락", 1984
춘천시 · 춘성군," 춘주지", 1984

휠체어댄스로 꿈 찾아가는 양광석 씨

교통사고로 허리 다친 뒤 실의에 빠져
전국대회 입상 계기로 건강과 웃음 되찾아

교통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친 양광석(42 · 후평동) 씨.

그에게는 휠체어가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니다. 사고 이후 휠체어를 보면서 실의에 젖었던 그가 지금은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한다. 휠체어와 함께 경쾌한 음악에 맞춰 땀을 흘리고 있다. 사고로 많은 것을 포기했던 그다. 하지만 4년 전 우연히 휠체어댄스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박자는 물론 휠체어가 거추장스러워 힘들었던 그가 휠체어댄스로 잃어버린 또 다른 꿈을 향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처음에는 마땅한 장소도 없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매일 2시간 이상 휠체어에서 연습을 해야 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흘린 땀방울이 하나 둘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2011년 강원도 어울림 댄스스포츠대회에서 휠체어 남자 라틴부문 1위에 올랐다. 그리고 작년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댄스스포츠 단체전 혼성 듀오 차차차 클래스2(휠체어)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국대회 입상과 함께 그의 건강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사회복지과에 입학하여 지난 2월 대학도 졸업했고, 재학중에는 레크리에이션 자격증도 취득했다.

양 씨의 올해 목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금메달 획득이며 심판과 지도자로의 미래도 준비하고 있다. 유산소 운동으로 척추 및 자세 교정의 효과가 있다는 휠체어댄스를 함께할 사람이 부족해 아쉽다는 양광석씨의 얼굴은 꿈이 있어 아름다웠다.

〈이종현 명예시민기자〉

춘천시민의 정신건강 지킴이

춘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질환 · 자살위험군 치료 도와

인생을 살면서 육체의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건강이다.

효자2동에 위치한 춘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박종익)는 춘천시민의 정신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는 곳이다. 조현병(정신분열)을 비롯해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등 간과하기 쉬운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정신질환 및 자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치료를 돕는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교육과 캠페인도 꾸준히 실시하고 아동 ·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센터의 중요한 업무다. 센터엔 5명의 정신보건간호사와 1명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명의 사회복지사가 정신적으로 힘든 시민과 그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상담을 통해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준다. 1주일에 한번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도 받을 수 있다.

현재 등록된 환자는 270여명. 이들은 센터에 나와 수시로 정신건강교육을 받고 1주일에 3일씩 미술심리치료를 비롯해 한글서예, 한문, 태껸, 요가, 에어로빅, 노래교실 등 둔화된 감정을 되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나 그 가족들은 주저하지 말고 센터의 문을 두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담 ☎244-7574 ☎1577-0199(자살예방 및 24시간 정신건강상담)〉

〈한영숙 명예시민기자〉

물푸레골 약수터, 등산객 목마름 해소

옥광산 줄기 지하서 나오는 청정 샘물 … 물 맛 좋아

동면 월곡리 옥광산 가기 전 약 500m 지점에 물푸레골 약수터가 조성돼 이곳을 찾는 일부 주민과 등산객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이 약수터는 조성된 지 1년 남짓하여 마을 주민과 옥광산을 자주 출입하는 외부인 외에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눈이 내리는 2월 둘째 주 일요일, 등산로로 이어지는 약수터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는 이 마을의 관리인을 만났다.

"옥광산 줄기 지하에서 나오는 청정 샘물을 끌어 만든 약수터인데 물맛이 아주 좋다"고 한다.

약수터에서 등산로를 따라 약 6.6㎞를 올라가면 '빙산' 정상이 있고 '매봉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어 이곳을



찾는 이용객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권진택 명예시민기자〉

'통통 창의력 발전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받아

공부보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갖도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파

문화예술단체 '통통 창의력 발전소'(대표 김정훈)가 강원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았다.

이 단체는 2007년부터 춘천에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표현하도록 하는 등 공연과 예술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통통 창의력 발전소'의 김정훈 대표는 춘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한국연극연출가협회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총괄운영 등 오랫동안 기획과 연출가로 활동했다. 그런 그가 서울생활을 접고 부부가 함께 고향인 춘천에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청소년 등에게 꿈과 문화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통통 창의력 발전소'.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스태프와 배우 등 전문예술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문화예술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요건이 어려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것.

'통통 창의력 발전소'는 지정을 받기 이전부터 춘천의 지역



아동센터는 물론 홍천과 인제, 양구 등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강원도 최초의 창작뮤지컬 윤희순과 청소년 힐링, 학교폭력 성찰 뮤지컬 등 결혼 이주여성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청소년의 자아 발견과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김 대표. 공부보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꿈을 갖도록 하는 문화예술교육 놀이를 전파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http://www.artplay.kr 〈이종현 명예시민기자〉



제4회 '성수 윈드 앙상블' 정기연주회

선 후배 동문들의 감미로운 하모니

지난해 12월 20일 오후7시, 개교 55주년을 맞이한 성수고등학교총동창회(회장 엄성철)가 주관하는 제4회 '성수 윈드 앙상블' 정기연주회가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1,000여 명의 시민과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40여명의 앙상블 연주단은 모두 성수고등학교 출신 선후배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현직 신동혁 교사의 지휘로 관악기의 감미로운 음률을 시민들에게 연말 선물로 선사하는 자리였다.

이날 연주곡은 Dakota, Magic Slides 등 10곡이었고, 이미 음악인으로 진출하여 빛나는 활약을 하고 있는 김석철, 용환구, 신한수(이상 클라리넷), 박종서(색소폰), 이호영(바이올린) 동문들이 협연 출연하여 자리를 더욱 빛냈다.

엄 총동창회장은 "지휘자 선생님을 비롯한 동문단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동문 모두의 단합과 노력, 열정의 결실로 이루어진 '성수 윈드 앙상블'에 성원해주신 춘천시민과 선후배 동문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광택 명예시민기자〉

송암아트리움 차문학 관장의 두 번째 개인전

나의 그림, 나의 컬렉션전

전시 기획과 틈틈이 미술 관련 글을 쓰며 갤러리를 운영하는 관장의 일상을 볼 수 있는 재미난 전시가 열린다. 송암아트리움 차문학 관장이 2004년 첫 개인전 이후 10년 만에 여는 개인전으로 작품 20여 점이 전시된다. 그의 작품은 캔버스 바탕에 여러 겹의 유화물감을 바르고 긁어내는 작업을 반복하고, 그 바탕 위에 단순화된 이미지만을 그려 넣으면서 완성된다.



차문학 그림 '먼 하늘 바람'

우리 주변의 잊혀가는 풍경들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현재의 모습은 오래된 과거의 바탕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단순한 그의 그림들은 독창적이며 문학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오래전부터 그림을 컬렉션한 그의 소장품과 해외 여행이나 출장 때 들른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이색적인 소품들도 함께 전시된다.

〈☎242-3691〉

새봄, 기다리던 공연이 쏟아진다

3월 18일~19일 김혜자 모노드라마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
4월 10일 '김광석 다시 부르기'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과 만나





상큼한 봄을 맞아 춘천시문화재단의 기획공연이 줄을 이어 펼쳐진다. 3월 18~19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김혜자의 모노드라마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가 올려진다. 프랑스 작가 '에릭 엠마뉴엘 슈미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공연작은 백혈병에 걸린 10살 소년 오스카와 소아병동의 가장 나이 많은 장미 할머니 간호사의 우정을 다루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김혜자는 장미 할머니 이외에도 오스카의 부모, 평생의 사랑 페기 블루, 친구들인 팝콘과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의 역할을 혼자 소화해 낸다. 공연시간은 오후 7시 30분, 관람료는 R석 4만원, S석 2만원이다.

4월 10일엔 '2014김광석 다시부르기'가 우리를 기다린다. 박학기, 동물원, 자전거 탄 풍경, 유리상자, 한동준, 슈퍼스타K의 홍대광 등 절친했던 동료들과 후배 가수가 '거리에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사랑했지만',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등 故 김광석의 주옥같은 히트곡을 부른다. 멀티비전을 통해 김광석에 대한 영상을 소개하는 '김광석 기억하기', 김광석이 몸담았던 그룹과 친구들이 그에 대한 추억을 전하는 '나의 노래', 친구들과 후배가 함께 들려주는 '그의 노래' 등 스토리가 있는 공연으로 꾸며진다.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춘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ccac.or.kr)나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 〈☎251-3474〉

〈한영숙 명예시민기자〉

'이야기가 있는 그림' 민화전

소연민화사랑회 3월 2일까지 M2카페에서

'참새는 기쁨, 오리는 장원급제, 연꽃은 다산, 자식을 낳아 장원급제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으랴.' 지난 2월 10일 카페를 찾은 시민들은 차를 마시며 민화를 감상했다. 작품 옆 길상의 의미를 읽어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다. 소연민화사랑회(회장 소연 김선자)는 2월 5일부터 3월 2일까지 춘천 M백화점 2층 M2카페에서 민화전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 회장을 비롯한 회원 10명의 화접도, 연화도, 호작도 등 민화 12점을 선보인다. 김 회장은 "이번 전시회는 우리 민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민화를 통해 새해 시민에게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권은순(후평2동) 씨는 "카페에 가끔 오는 편인데 갤러리에 가지 않고도 작품을 볼 수 있어 좋았다"며 "특히 초충도를 보면서 신사임당의 그림이 떠올라 눈이 즐거웠다"고 했다.

소연민화사랑회는 '고색빛'과 '오방색동회'가 결합된 민화단체다. 민화작가를 포함해 30여명의 회원들이 요양병원, 군부대 등 재능기부 활동과 전시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함혜인 명예시민기자〉

노래불러주는 경찰관

경로당 찾아 위문공연 … 어르신들 어깨춤 들썩



2월 12일 오후 2시 소양로에 있는 호반경로당에는 경찰 위문공연단의 신명 나는 음악에 맞춰 어르신들이 어깨춤을 추며 웃음바다를 이루었다.

경로당을 찾은 춘천경찰서 '무궁화 효 봉사단'은 '신사동 그 사람', '내 나이가 어때서', '양산도' 등 대중가요와 민요 등을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승웅 노인회장은 "경찰관 위문공연은 처음인데 경찰관은 딱딱하고 상대하기가 어려운 줄만 알았더니 아주 친절하고 효심이 깊어 보인다"면서 업무에 바쁠 텐데 시간을 내서 위문까지 해주니 참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봉사단장 박승호 경감을 주축으로 색소폰, 트럼펫, 드럼 등 악기 연주와 노래를 좋아하는 경찰관 11명으로 구성된 무궁화 효 봉사단은 퇴근 후 짬짬이 시간을 내어 연습을 하고 있다.

박 경감은 "지금은 시작 단계라 다소 미숙한 점이 있지만 시간 나는 대로 연습을 많이 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흥미롭고 알찬 봉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명예시민기자〉

"흙 만지며 봄 맞아요"

윤 도예공방 체험교실 운영 … 컵, 접시 직접 만들어



2011년 문을 연 '윤 도예공방'(대표 김윤선)은 수강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예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전직 중등교사였던 김 대표는 도예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2013년 교편을 놓고 본격적인 도자교육에 뛰어들었다. 현재 후평동 윤 도예공방과 숍, 가마가 있는 금병산 예술촌의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김 대표는 "도자기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싶어 공방을 열게 됐다"며 "10년 동안 대학교에서 했던 강의를 바탕으로 이론교육과 체험 중심의 수업을 한다"고 했다.

참가자는 기초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컵, 접시 등 각종 생활도자기와 작품을 직접 만들고 구입할 수 있다. 수강생 황효진(24) 씨는 "흙작업 기초부터 지도를 받아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도예공방에서는 흙을 체험하러 오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하고 있다.

〈☎242-4797〉

〈함혜인 명예시민기자〉

전국서 찾아오는 춘천동물보호센터

최신식 시설,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작년 유기동물 570여마리 보호

춘천시동물보호센터가 전국에서 찾아오는 벤치마킹 하러오는 발길로 분주하다. 지난 2013년 1월 1일 문을 연 춘천동물보호센터는 홍천군, 가평군, 영주시, 고양시, 안동시 등 시설과 운영을 배우려는 자치단체들의 방문을 받고 있다.

신북읍 유포리에 위치한 센터는 783.9㎡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목욕시설, 치료실, 격리실이 갖춰져 있다. 소형견 8실 80마리, 중형견 3실 20마리, 대형견 1실 5마리, 고양이 2실 50마리 등 155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

4계절 중 여름에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진다는 이상봉 시청 축산과 가축방역담당은 "지난해는 570여 마리가 센터를 거쳐 갔으며 이 중 50~60%가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춘천시동물보호센터는 지난해 자원봉사 확인을 해준 명단 만해도 150명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관내 유치원생과 학생들의 견학 코스로 확산되고 있다.

〈☎250-4762〉

마을의 안녕 기원하는 동광 거리제

구한말부터 전해오는 100년 전통의 행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광마을 거리제가 2월 12일 동광경로당에서 올려졌다.

이영상(75) 노인회장을 제주로 마을 어르신들이 참석한 이날 거리제는 100년 전통에 따라 가정의 한 해 태평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가구별 소제가 올려졌고 축문에 이어 어르신들의 배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동광 거리제는 구한말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을 행사로 옛 뒤뚜루(현 후평1동)마을 중 동광이라는 자연부락에서 일제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올려졌다고 한다.

이 노인회장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동광 거리제는 마을의 단합과 이웃 간 화합을 다지는 마을 행사로 시대 변화와 상관없이 이어져 오는 마을의 미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일 명예시민기자〉

안전 춘천

5만원권 위조지폐 사용한 범인 검거

지난 1월 소양로 한 주점에서 술값으로 위폐 8매 사용 등



맨 오른쪽 한 장이 진폐이며 왼쪽 여러 장은 모두 위폐로 홀로그램선이 반짝이지 않고 진하다

춘천경찰서(서장 손호중)는 지난해 12월 초 경기도 00시에서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58매를 위조하여, 1월 1일 새벽 4시께 춘천시 소양로 한 주점에서 술값으로 8매를 사용하는 등 경기 · 강원 · 대전 · 충남 등에서 총 52매를 사용한 이 모(3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통화위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 통화위조사범은 최고 사형 또는 무기 · 5년 이상의 징역)

경찰에서는, 위조지폐 발견 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며, 112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면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5만원권 위조지폐 식별방법>

① 앞면 홀로그램 옆 숨은 신사임당 초상

② 왼쪽 띠 홀로그램에 태극, 지도, 4괘무늬가 순차적으로 보임

③ 앞면 중간 노출은선 안에 태극문양이 있으며 좌우로 기울이면 태극문양도 따라서 움직임

중국인 사업가, 춘천경찰서 홈피에 감사 글 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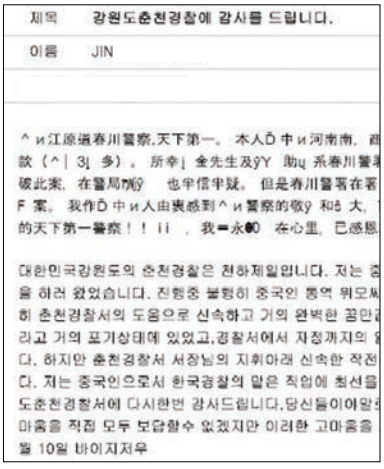
춘천옥(玉) 구입하기 위해 가져온 3억여원 잃었다 되찾아



손호중 춘천경찰서장

춘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춘천옥을 구입하기 위해 입국한 중국인 사업가가 가져온 3억1,300만원을 훔친 범인을 사건 발생 18시간 만에 서울에서 검거하여 훔친 현금 전액을 회수,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돈을 되찾게 된 중국인 사업가는 1월 13일 춘천경찰서 홈페이지에 "춘천경찰은 천하제일입니다. 이러한 고마움을 중국과 한국의 우정을 쌓는 데 바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감사 글을 중국어를 병기하여 올려 고마움을 표했다.



제목 강원도춘천경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 JIN

^ и江原道春川警察,天下第一。 本人Ō 中и河南南, 函
款（^| 3| 多）。 所幸| 金先生及ÿY 助ц 系春川警
破此案, 在警局内ÿ 也甲信甲疑。 但是春川警署在署
F 案。 我作Ō 中и人由衷感到^и警察的敬ÿ 和ŝ 大,
的天下第一警察！！ii ，我■永●0 在心里, 已感恩

대한민국강원도의 춘천경찰은 천하제일입니다. 저는 경
을 하러 왔었습니다. 진행중 불행히 중국인 통역 위모씨
히 춘천경찰서의 도움으로 신속하고 거의 완벽한 꿈만
리고 거의 포기상태에 있었고,경찰서에서 자정까지의 일
다. 하지만 춘천경찰서 서장님의 지휘아래 신속한 작전
다. 저는 중국인으로서 한국경찰의 맡은 직업에 최선을
도춘천경찰서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당신들이야말로
마음을 직접 모두 보답할수 없겠지만 이러한 고마움을
월 10일 바이지저우



소양1교에 자살 방지용 경광등 설치

소중한 '생명 지킴이' 역할 기대

소양1교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스티커 및 경광등이 설치돼 호응을 얻고 있다. 태양열을 이용한 이 청색 경광등은 다리 난간 상단부에 3개가 설치되었는데 일몰이 되면 자동 점멸한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명 구조함' 과 'SOS 생명의 전화' 를 설치한 데 이어 '다리 난간 보강공사'를 마치는 등 안전사고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명 구조용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한순간의 그릇된 선택으로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되겠다.

〈권진택 명예시민기자〉

파손 방치된 운동기구 정비 필요

석사동 롯데마트 뒤편 약수터에서 오르는 애막골 산정상 주변의 운동기구 중 상당 부분이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애막골 산의 일부 운동기구 나무가 썩어 제 기능을 못하고 여기저기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미관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만큼 정비가 절실하다.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 관리 절실

동내면 거두리 먹자골목 끝에 자리한 부대찌개 식당 앞에 설치된 재활용쓰레기 수거장이 유리파편과 폐스티로폼 등이 길가로 떨어져 나와 도시미관뿐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이곳은 매일 아침만 되면 재활용쓰레기장에서 유입된 병 유리 조각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인근의 한 주민은 빈병이나 페스티로폼을 버릴 때 자루나 용기에 담아 완전히 묶어서 버릴 것을 당부하고 재활용쓰레기장 적재공간 높이를 높여 빈병 등이 굴러 떨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황순옥 명예시민기자〉

제244회 임시회 개회

김영일 춘천시의장은 2014년 첫 회기인 제244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 춘천시의회는 지난 한해 바르고 참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고, 지난 한 해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하신 20여건의 조례와 규칙안 및 결의안 등을 포함하여 아홉 번의 회기 동안 총 90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격려와 질책, 그리고 신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의결 안건 처리 내역

안건명	의결내용	비 고
신북읍 군비행장 주변 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한중일의원 대표발의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춘천시 읍 · 면 · 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춘천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보류	황환주의원 대표발의
춘천시 번개시장 일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견제시	
춘천도시공사 사업자본금 현물출자 동의안	가결	권고사항 있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전체 소관)	–	

신북읍 군비행장 주변 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박찬홍 의원



신북읍 군비행장 주변 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홍 의원은 특별위원회 활동의 결과로 신북읍 지역주민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며, 군비행장 부대에서도 관련에 산을 확보하여 소음 피해에 대한 용역이 수행되는 등 지역의 소음 피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약 40년간 신북읍 군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군용비행기 이·착륙 및 선회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어 왔지만,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 집행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피해에 적극 대처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다 상세한 의정소식은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244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



박근배 의원

축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박근배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춘천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발전적이고 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축제가 자꾸 희석되어 가는 느낌이 있다. 춘천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에 많은 외지 관광객이 오면 우리 막국수와 닭갈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이에 대응책으로 축제 지원을 많이 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집행부에서 어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면 그 축제가 점점 커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하며, 지역 상경기를 활성화하고 춘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발언 하였다.



황찬중 의원

월드라이트파크 좌초에 대하여

황찬중의원은 월드라이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실패한 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더 이상 무원칙한 민간제안사업의 행태를 반복하지 말자고 했다.
우리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원칙을 지켜 지금이라도 시급히 공모과정을 시작하고 새 시행사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사업계획서의 보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최종 소유권이 넘어오는 기간까지 피해금액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는데 춘천시 행정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10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주장하였다.



황환주 의원

남부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전용복지관으로 이용되도록

황환주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부노인복지관의 공간 협소로 인한 단기 해결책으로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증축하여 부족 공간을 마련해 줄 것과, 장기적 과제로 인근에 강남동주민자치센터를 새롭게 신축 이전하여 남부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전용복지관으로 이용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음으로 읍면동의 사업예산 중 총무과에서 읍면 지역만이라도 소규모 민원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배정해줄 것과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춘천시의 농업정책이 새로운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쌀 가격은 어느 선에서 유지 될 것인지와 경쟁력은 어떤지, 대체작물로 전환하였을 경우 어떤 이점이 있는지, 타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의정활동



설 명절 맞이 시립양로원 위문 (2014년 1월 24일)



피플투피플 일본 교류단 의회 방문 (2014년 2월 7일)

봄내골 소식

● 춘천구세군교회(사관 이재우)는 2월 12일 석사동주민센터를 방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kg 31포를 기증했다.



● 춘천시와 웰컴투춘천추진협의회, 닭갈비협회는 2월 13일 명동에서 닭갈비 길거리 시식회 및 닭갈비, 오리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춘천시장 권한대행 신용철 부시장은 이에 앞서 1월 28일 AI(조류 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갈비 업소에서 소비촉진 시식행사를 갖은데 이어 중앙시장을 방문,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했다.



● 한국관광공사는 2월 5일 명동번영회 사무실에서 한국여성리더십센터 원장 주연화 교수를 초빙해 명동닭갈비골목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 꿈초롱 어린이집(원장 이경자)은 2월 13일 세린교회에서 원생 재롱잔치를 겸한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뜻 깊은 시간을 선사했으며, 현장에서 모금한 성금 49만5,000원을 후평2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 춘천시는 2월 4일 후평동 하이테크벤처타운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사농동 벨몽드 강북점(대표 엄태성)은 2월 12일 신북읍 저소득층을 위해 쌀10kg 29포(총 87만원 상당)를 신북읍사무소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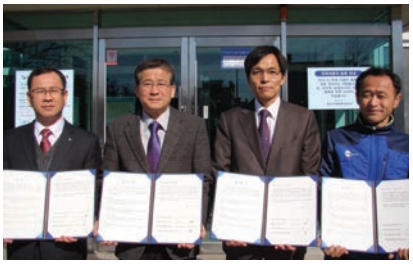
● 중앙시장 상인, 춘천시, 소비자연맹 등 30여명은 1월 24일 중앙시장 일대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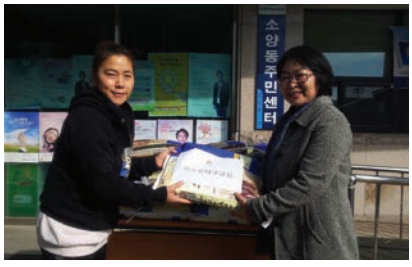
● 동산면 사랑나눔후원회(회장 정종식)는 1월 24일 어려운 이웃 71가구에 가구당 사랑의 쌀 20kg씩을 전달(총 376만원)하였다.



●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임근식)와 현대자동차(지점장 차순구), 기아자동차(지점장 김명섭), 춘천자동차정비조합 카포스(지회장 이춘복)는 2월 4일 협약을 맺고 3월부터 내방민원인 및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차량무상점검 서비스를 하기로 하였다.



● 이수은 탁구교실(대표 이수은)은 1월 28일 소양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설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kg 20포를 전달했다. 또 같은 날 후평3동 주민자치센터에도 쌀10kg 21포(총 28만원상당)를 전달했다.



● 춘천시이통장협의회(회장 김길태)는 1월 27일 시청을 방문, 지난해 일일찻집과 고구마 수확 수익금으로 라면 250상자(총 500만원 상당)를 구입,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전달했다.



● 춘천성도교회(담임목사 이정화)는 1월 23일 효자1동 주민센터를 방문,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0만원 상당의 위문품(쌀 10kg 50포, 상품권 60만원)을 전달했다.



● 후평3동 자생단체 회원 및 주민 120명은 2월 1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후평3동 행복마을 정월대보름 윷놀이 대회'를 열고 주민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 후평3동 은하수봉사단(단장 김미애)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학준)는 2월 14일 관내의 홀몸 어르신 중 2월에 생신을 맞이하신 분들을 초대하여 점심식사를 제공 하였다.



● 춘천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경화)는 1월 24일부터 이틀간 엘리시안 강촌에서 자활 참여주민 가족 6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스키교실'를 열고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 춘천호반요양병원(이사장 김경수)은 1월 21일 어르신들의 즐거운 설 명절을 위해 쌀 20kg 15포, 소주 15상자를 강남동 관내 경로당 15곳에 전달했다.

● 약사명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재춘)는 2월 12일 동주민센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 달라고 180만원 상당 위문품(쌀 50포, 라면 20상자)을 전달했다.



● 퇴계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1월 22일 동주민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kg 80포(총 24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또 춘천남부새마을금고(이사장 지성배)도 같은 날 동주민센터에 쌀 10kg 50포(총 150만원상당)를 전달했다.



● 새마을운동중앙회춘천시지회(지회장 손준식)는 1월 28일 시청을 방문, 설명절을 맞아 저소득 노인을 위해 150만원 상당의 한과를 전달했다.



● 후평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종섭)와 통장협의회(회장 박정임)는 2월 11일 후평2동 주민센터에서 자생단체와 주민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척사대회를 열었다. 한편 후평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명숙) 회원들은 1월 28일 관내 경로당에 떡과 라면(총 40만원 상당)을 전달하였다. 1월 22일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로 10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한문서예반 송대식 강사와 사군자반 신화우 강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지사장 손정락)는 1월 29일 '공감있는 사랑의 떡국나눔' 행사로 모듬떡 세트를 어려운 노인들에게 전달했다. 춘천지사는 10년째 춘천동부노인복지관과 협력하여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주1회 밑반찬 배달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또 직원 7명은 2월 10일 강원혈액원에서 헌혈하였다.



● 춘천시아동위원회(위원장 신진태)는 1월 27일 사북면 아동양육시설 꿈터를 방문, 청소기 1대, 드라이기 2대, 겨울내복, 우산 등 40만원 상당 생필품을 전달했다.



● 춘천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 안충원)는 1월 28일 사랑의 좀도리운동을 통해 모은 성금 203만원과 쌀 150kg(총 35만원 상당)을 사북면 나눔의 동산에 전달하였다.



봄내골 소식

● 전국한우협회 춘천시지부(지부장 박영철)는 1월 21일 어려운 노인을 위해 한우불고기 80인분(총 120만원 상당)을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 전달했다.



● 한국폴리텍대학Ⅲ 춘천캠퍼스(학장 정용섭)직원 일동은 1월 22일 동산면사무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10kg 18포대(총 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 교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정종임)는 1월 28일 홀몸노인 30세대에 떡과 만두(1,000개)를 지원했다. 새마을금고 교동지점(지점장 송의수)도 김 30상자(총 3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 춘천세무서(서장 이문희) 직원들은 1월 28일 교동 저소득 노인 2가구에 각 성금 20만원과 쌀, 라면, 과일 등(1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 한국수력원자력(주) 의암수력발전소는 1월 29일 신동면 의암리 마을회관에 컴퓨터 1대, 복합기 1대를 기증했으며, 연탄 2,100장과 쌀 10kg 15포를 불우이웃 6가구에 전달했다. 1월 27일에는 관내 경로당 29개소에 쌀 300kg(총 72만 5,000원 상당)을 전달하였다.



● 후평2동 주공7단지아파트 동대표 10명은 1월 23일 자체 성금으로 구입한 한과 11세트(총 18만 7,000원)를 불우이웃을 위해 후평2동 주민센터에 기증했다.

● 동내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의호)는 병뚜껑 모으기운동 성금으로 구입한 라면 22상자(총 22만원상당)를 1월 27일 어려운 가정 11세대에게 전달했다. 동내면 이장단협의회(회장 김만제)도 1월 28일 관내 복지시설(동내지역아동센터, 한삶의 집)을 방문하여 라면 10상자(총 24만원상당)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 동면 만천1리 6반(반장 이춘호)주민들은 1월 22일 시청 복지1과를 찾아 성금 52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였다.

● 근화어린이집(원장 김춘화)은 1월 24일 무료급식소에 떡 10kg을 전달했다. 또 음식점 마장동(대표 지영선)은 같은 날 고추장14kg, 된장14kg, 식용유18L, 간장 18L, 귤 1상자를 무료급식소에 지원했다.

● 강남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신정자)는 1월말 성금 마련을 위해 강남동주민센터 앞에서 김, 미역, 낙지젓갈, 한과 등으로 바자회를 열었다.

● 효자어린이집(원장 한계영)은 바자회 겸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32만 5,000원을 1월 29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 조양동 상신당(대표 최승원)은 1월 27일 저소득가정 12가구에 과질 12상자를 후원했으며, 운교동 정선달(대표 조석중)은 1월 28일 조운동 저소득가정 10가구에 쌀 10kg 10포대를 지원했다.

● 근화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최춘자)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강인호)는 1월 24일 병뚜껑을 수집하여 받은 쌀 130kg 저소득층 13가구에 전달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는 1월 27일 퇴계동 관내 저소득 20가구에 쌀 8kg 20포(총 37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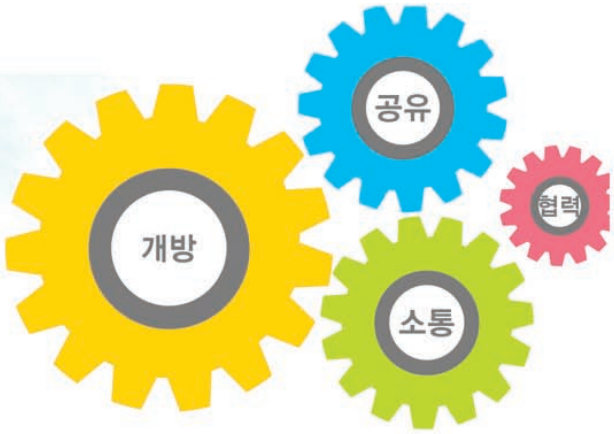
● 강남동 17통장 홍미숙 씨는 1월 29일 어려운 이웃 17가구에 본인이 만든 만두 350여개를 전달하였다.

● 소양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2월 12일 관내 어려운 이웃 5가구에 농협상품권 20만원씩 전달하고 위로했다.

● 효자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대)는 설을 맞아 저소득층 22세대에 1만원권 상품권 3매씩을 전달했으며, 던킨도너츠 강원대점(점장 김재훈)은 어려운 세대 30가구에 도너츠 1상자씩(총 3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춘천중앙교회(목사 유창종)도 저소득층 30가구에 김36세트(총 45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 강남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1월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에 힘쓴 노고를 인정받아 강원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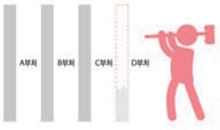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부3.0



공공정보 공개확대로
「국민의 알권리」충족



국민의
정부정책 참여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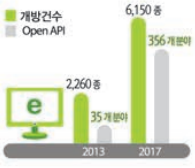
정부 내 칸막이 제거로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 제고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정보공유와 디지털협업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구현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 강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습·교육

강남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 모집기간 : 3.20~3.21
(강남동 주민우선, 선착순)
□ 수강기간 : 4.1~6.30
□ 수강료 : 4만5천원/우쿨렐레만 3만원
(3개월분 선납)
※단, 수급자,모부자가정,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는 100% 감면
※65세이상 경로우대자는 50%감면
※관련증명서, 신분증 지참
□ 기타 : 수강생 10명 미만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음. 프로그램 및 강의시간은 자치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250-3624

프로그램	인원	운영일정	
라인댄스(초급)	40	수,금	10:00~12:00
라인댄스(중급)	40	수	13:00~15:00
		금	14:00~16:00
국학기공	40	화,목	13:00~15:00
민요교실	30	월	14:00~16:00
		수	16:00~18:00
기타교실	25	월,수	14:00~16:00
우쿨렐레	25	목	13:00~15:00
노래교실	60	화,금	14:00~16:00
탁구교실	30	화,목	15:10~17:10
요가교실	40	화,목	10:00~12:00

후평3동 청소년대상 중국어 무료강좌

□ 과목 : 중국어 초급(토/9:00~10:20)
중급(토/10:30~11:50)
□ 신청기간 : 2.25~3.7
□ 운영기간 : 3.8~2015.2.28
□ 문의 : ☎245-5698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 **발도르프 인형극** : 유아 및 어린이 가족 대상/3.15(토)14시/시립도서관 ☎245-5119
★ **클래식 음악동화** : 유아 및 어린이 가족 대상/3.2.(일)14시/강사 이진화, 민계숙/내용:아주 특별한 생일선물(비발디 음악과 친해지는 동화)/시립도서관 ☎245-5119
★ **다문화 동화 읽기** : 유아 및 어린이 20명 대상/3~4월 매주 토14시(둘째주 토요일 제외)/강사:야스다 교코/일본 그림책 함께 읽기(일본어 몰라도 가능)/시립도서관 ☎245-5119
★ **북스타트 책나들이** : 엄마와 아기(24~36개월)10쌍/3~4월 매주 수11시(3월12일부터 시작 8회차)/그림책 읽고 다양한 책놀이 활동/시립도서관 ☎245-5119
★ **3월 인문학 강좌** : 매주 목 19시/강사:길진숙(남산강학원 연구원)/주제:중국의 제자백가를 읽다! 난세를 횡단하는 삶의 기술들/당일 현장접수/☎245-5109
★ **3월 오페라여행** : 3.26(수) 19시/강사:김종로(강원대 불문학과 교수)/주제: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와 사랑의 비극/당일 현장접수/☎245-5109
★ **4월 문학여행** : 4.2(수)09:30~/장소:사북면 일대/내용:"아베의 가족"을 읽고 작품 속의 배경지 답사/30명 이내(도서관회원증 소지자)/접수:춘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춘천문학여행'/3.20(목)09시부터 선착순 접수/☎245-5109
★ **독서동아리** : 초등 3·4년, 5·6학년, 중학생(3개반 편성/각30명)/기간 3월~12월/소양도서관 2층 시청각실/독서토론 및 독후활동/강사:허남정, 김희경(독서지도사)/접수:2.25(화)10시~3.5(수)17시/방문 및 전화 선착순/☎245-5145
★ **동화구연** : 초등 2학년 대상 30명/3월~5월(15회) 매주 토15시/소양도서관/동화구연을 통한 듣기, 읽기, 말하기 등 언어능력 향상/강사:박해경(동화구연가)/접수:2.25(화) 10시~3.5(수)17시/방문 및 전화 선착순/☎245-5145

고혈압 교실

□ 운영일시 : 3월 매주 목요일 14시
□ 대상 : 고혈압 환자 및 가족 25명
□ 교육장소 : 시민복지회관 5층 보건교육실
□ 교육내용 : 1주차(고혈압의 이해 및 관리) 2주차(고혈압의 운동요법) 3주차(고혈압의 식이요법) 4주차(식이요법 체험)
*매주(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건강상담)
□ 문의 : 춘천시보건소(☎250-4561, 4034)

국립춘천박물관 3월 프로그램

□ 작은전시 : 상설 3전시실 '부처의 손'
□ 캐리커처, 요술풍선 만들기 : 3.8(토), 3.22(토) 13시/중앙홀/자기모습 표현, 동물모양 풍성 만들기
□ 가족영화 상영 : 매주 토·일(15시)/국립춘천박물관 영화관
□ 박물관 교육 : 새싹들의 박물관나들이(학교연계 유·초등생/화~금 09:30~)
지구촌박물관가족(외국인 단체 및 다문화가족/화~금 09:30~) 상설체험실(관람객 전체/문화재 탁본, 점토틀찍기 등 *무료·상시 운영)

목공 체험교실

□ 신청기간 : 3.3~3.31
□ 교육장 : 목공체험장(퇴계동)
□ 시간 : 주말을 이용, 내손으로 가구 만들기 교실 운영
□ 문의 : 춘천도시농업센터(☎252-7400)

비만예방관리교실

□ 운영기간 : ▷1기(3.10~5.2) ▷2기(5.19~7.11) ▷3기(9.22~11.14)
□ 교육대상 : 20세 이상 성인으로 과체중 또는 비만인 자 (▶BMI 23이상※ BMI(체질량지수)=체중(kg)/신장(m)^2] ▶체지방율 남자 25%이상, 여자 30%이상)
□ 교육내용 : 8주 프로그램(매주3회 참석), 열량처방 및 운동처방, 건강상태 점검
□ 문의 : 춘천시보건소(☎250-4693~4)
※ 단체접수가능, 선착순 전화접수

비정규학교 교육

□ 어려운 가정환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비정규학교 운영함
□ 비정규학교 : 소양야간중고등학교(☎254-2036) 신흥 야간초중고등학교(☎253-7736) 예맥 야간학교(☎256-3668)
□ 학생 모집 : 연중 수시모집, 연령 및 성별 무관(단 고졸자는 제외), 수업료 없음
□ 문의 : 각 학교 및 춘천시 청소년과
(☎250-3106)
◆ 고입·고졸 검정고시 시행 : 1회(원서교부 및 접수 2.17~2.21/시험일자4.13) 2회:7월말~8월초(예정)

춘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 프로그램 : 수영,헬스,에어로빅,아쿠아로빅,장구 등
□ 상세내용 : 홈페이지(www.cuc.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 : ☎243-0617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 동아리연합회 모집

□ 신청기간 : 2.4~3.15(면접 3.22)
□ 신청연령 : 14세~19세
□ 신청방법 : www.cc1318.or.kr 공지사항 확인→첨부파일 다운→작성 후 메일 발송
□ 선발기준 : 청소년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성실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 활동내용 :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기획 · 참여, 청소년 정책 토론회 · 리더십 캠프 · 워크숍 참가, 청소년문화존, 소식지 발간 등 □ 문의 : ☎251-1318

2014 드림하이프로젝트 '자연이 주는 선물'

□ 모집대상 : 초등1~4학년(40명)
□ 교육일정 : 3.15(토) 양평 어린농부 딸기체험농장
□ 교육내용 : 딸기밭에서 봄을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 □ 문의 : ☎251-131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가청소년 모집

□ 모집대상 : 만 14세~25세 모든 청소년
□ 참가내용 :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탐험활동 등
□ 문의 : ☎251-1318, www.cc1318.or.kr/

문화강습 프로그램

□ 드럼 : ▷학생(개강4.12/토13~21시(2시간기준)/8주7만원) ▷성인 초중급(개강3.13/목19~21시/8주8만원) ▷성인 고급(개강3.4/화18~22시(2시간기준)8주8만원) ▷전문가반(개강3.26/청소년 · 성인/수19~21시/학생10만원,성인12만원) ▷해금(개강3.6/청소년 · 성인/목19~20시/4주7만원) ▷스포츠스태킹(개강3.8/청소년/토10~12시/4주3만원) ▷통기타(초중급/개강4.26/청소년성인/토13~17시(2시간기준)/8주8만원)
□ 문의 : ☎251-1318, www.cc1318.or.kr

춘천YWCA 프로그램(☎254-4878)

□ EM생활환경 무료교육 : 3.12(수)오전10시/EM발효액,비누 만들기
□ EM발효 화장품교실 수강생 모집 : 접수 3.11까지(선착순 12명)/교육3.14일 14시 /수강료 7만원
□ 장년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 산모신생아도우미, 단체급식조리원/총교육일수 15일(월~금 13~17시)/교육비 무료, 참여수당 4만원 지급
□ 장년(고령자) 인재은행 연중운영 : 고령자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직업적응훈련 및 직장소양교육/대상:만 50세 이상 구직 희망자 및 50세 이상 채용 사업체

신청 · 모집

셋째아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신청

□ 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만 24세 이하 대학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1회)
※단 국가장학금, 지방자치단체 학자금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월~2학기 말까지
□ 문의 : 춘천시 여성가족과(☎250-4332)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

□ 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금액 : 입학금 및 수업료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자금, 직장에서 지원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문의 : 춘천시 여성가족과(☎250-4332)

한림대학교 스포츠센터 3~4월 회원모집

□ 모집분야 : ▶수영(성인수영 주중, 주말/유아수영/아쿠아로빅/개인강습 등)
▶헬스(헬스/개인 PT/소그룹 PT 등)
▶스쿼시(새벽반, 저녁반(강습시간외 자유운동)
▶G · X(그룹운동:요가/짐스틱/스텝박스&캐틀벨/줌바휘트니스)
▶건강 · 다이어트(타바타 다이어트)
□ 모집대상 : 시민 누구나
□ 접수기간 : 2,23부터 수강료 납부순 등록
□ 개강일 : 3.3
(※신분에 따라 최고 30%까지 감면혜택)
홈페이지(http://hsc.hallym.ac.kr) 참조
□ 문의 : 한림스포츠센터(☎248-3500)

(사)문화강대국 2014 상반기 공개 오디션

□ 일시 : 3.9(토) 오후1시
□ 참가자격 : 만 30세 이하 누구나
□ 모집분야 : 연출, 기획, 작가, 연기, MC, 뮤지션, 댄스, 무용, 마술, 국악, 타악, 디자인, 영상, 스탭 등 공연예술 전 분야
□ 장소 : (사)문화강대국 연습실(동내면 영서로 1781)
□ 문의 : ☎253-5058

춘천교육 삼락합창단원 모집

□ 모집기간 : 2월~3월말까지
□ 모집대상 : 음악에 관심있는 분(연령 제한없음)
□ 문의 : 010-8244-1150(회장)

2014 숲해설가 교육생 모집

□ 접수기간 : 2.28(오후 6시까지)
□ 교육인원 : 40명
□ 교육기간 : 3.20~6.22(41강/176시간)
□ 주최 : (사)춘천생명의 숲(☎241-7454)

한화 이글스 춘천베이스볼 클럽 회원모집

□ 훈련일시 : 04~11월(매주 금 16시~17:30)
□ 훈련장소 : 리틀야구장 및 의암야구장.
□ 모집대상 : 초등학교 2~3학년(20명 선착순)
□ 연회비 : 10만원
□ 지원사항 : 유니폼, 야구화, 물품지원, 프로야구 홈경기 관람.
□ 문의 : 춘천시체육회(☎264-5750~1)

2014년 생활체육 가족캠프(1차) 모집

□ 참가접수 : 3월 3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80명(가족단위:자녀 초등3학년이상)
□ 참가일시 : 4.5(토)~4.6(일)
□ 캠프장소 : 치악산드림랜드유스호스텔
□ 참가비 : 1인당 3만원
□ 문의 : 춘천시생활체육회 (☎264-5750~1)

2014년 생활체육 교실사업 모집

□ 강습기간 : 4월~6월 □ 대상 : 춘천시민
□ 접수기간 : 2월 25일부터 선착순
□ 종목A(주간반) 7종목 : 탁구,볼링,요가,패러글라이딩,테니스,배드민턴,파크골프

□ 종목B(야간반) 5종목 : 탁구,요가,인라인, 다이어트댄스,스케이팅
□ 문의 : 춘천시생활체육회 (☎264-5750~1)

아름다운가게 활동천사 모집

□ 활동업무 : 아름다운가게 매장관리 및 고객응대, 물품정리 등
□ 활동시간 : 주 1일4시간(3개월 이상 활동 가능한 분) ▷월~토(10~14시, 14~18시)
□ 활동혜택 : 자원봉사시간 인정 및 오전근무 중식제공
□ 문의 : 아름다운가게 춘천점(☎253-0050)

수화통역사 수강생 모집

□ 대상 : 사회복지시설 · 단체 종사자,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시민 누구나
□ 접수기간 : 2.11~3.7(각 반 선착순 30명)
□ 교육비 : 5만원
□ 교육일정 : 3.11~5.29(화,목 10시~11:30/19시~20:30)
□ 문의 : (사)강원도농아인협회 춘천시지부 (☎252-9056, 244-1474)

상자텃밭 및 친환경 원목가구 보급

□ 대상 : 춘천시민
□ 보급내용 : 목재 상자텃밭, 친환경 원목가구
□ 신청접수 : 3.3~4.30
□ 문의 : 춘천도시농업센터(☎252-7400)

도시텃밭분양 및 도시농업 체험단 모집

□ 대상 :
①도시텃밭 분양 희망자 ②도시농업 체험단
□ 보급내용 : 텃밭분양 및 도시농업 체험
□ 신청접수 : 3.3~4.15
□ 문의 : 춘천도시농업센터(☎252-7400)
※도시텃밭용 토지제공이나 임대하실 분 연락 바람.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 중소기업 무역인력양성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2.3~ 3.7
□ 모집대상 :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 (20명), 청년실업자(5명)
□ 교육기간 : 이론교육(3.10~5.2) 현장실습(5.12~6.9)
□ 교육내용 :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무역이론, 수출입 절차, 클레임 등 무역실무이론 등
□ 지원내용 : 교육비 전액 무료 (교재, 교통비/식비 제공), 교육후 취업지원
□ 문의 :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지회 ☎251-9080

정신건강 상담 멘토 모집

□ 내용 : 저소득층 가정의 정서 · 행동 고위험군 초등학생을 대상
□ 모집 : 대학생 멘토 4명(관련학과 우대/면접 후 결정)
□ 문의 : 춘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242-7574)

한림성심대학교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10~3.10
□ 교육기간 : 3.17~8.13
□ 모집과정 : 6개 과정 83개 강좌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lifepartner.hsc.ac.kr) 참조) □ 문의 : ☎240-9490

제1기 춘천사회복지대학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3.4까지(시민 2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5~4.11 (매주 수,금 10시~11:30)
□ 교육비 : 3만원
□ 문의 :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 (☎262-5994, 070-4131-5994)

춘천시 유 · 청소년 스포츠단 모집

□ 춘천시 유 · 청소년 스포츠단은 유아, 유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10개 종목 이상의 스포츠클럽을 개설하여 약 1,3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 종목 : 축구,농구,야구,테니스,배드민턴,탁구,사격,태권도,플로어볼,스케이트보드,어그레시브인라인
□ 회원특전 : 단체복 · 유니폼지급, 스포츠단 전체회원 하계 · 동계캠프 참가
□ 접수방법 : 검색창에 춘천시체육회->춘천시유 · 청소년스포츠단 클릭->종목선택->공지사항->참가신청서다운로드후 작성 -> 이메일 또는 팩스(문의) 발송
□ 문의 : 춘천시체육회 (☎264-5750~1) www.ccsports.kr
※바우처카드 사용가능

택견무료회원 모집

□ 모집내용 : 수시모집 00명
□ 대상 : 택견 수련으로 건강과 호신술에 관심 있는 모든 분(주부, 노인 대환영)
□ 강사 : (사)강원택견문화원장, (사)한국택견협회 강원도지부장
□ 장소 : (사)강원택견문화원(남춘천초교 앞)
□ 시간 : 매주 화(10시~11:30/19시~20:30)
□ 문의 : ☎242-9191/010-7180-8592

장애여성 생애설계사교육생 모집

□ 교육대상 및 인원: 춘천시 거주 만 25세~59세 여성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복지에 관심에 있는 중졸 이상의 여성 30명
□ 교육기간 : 3월~8월 (매주 1회/ 2시간/ 총16회)
□ 강사 : 장애인복지 종사자, 재무설계, 보험설계, 금융기관 전문가 등
□ 문의전화 : 내일을여는멋진여성춘천시지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264-4499)

전액국비 취업과정(1년) 신입생 모집

□ 접수기간 : 모집 완료시까지
□ 특전 : 교육비 전액지원, 기숙사 무료제공, 교육수당 및 교통비 지급(월25만원), 취업알선 등
□ 문의 :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260-7651~6)

2014년 여성회관 산악회원 모집

□ 대상자격 : 산을 좋아하는 여성 (정회원제 50명)
□ 산행주기 : 첫째주, 세째주 수요일 (월2회)
□ 산행지 : 춘천근교 산, 전국 유명산
□ 회비 : 월 3만원(*가입비 3만원)
□ 문의 : 산악회장(010-6329-3791) ☎250-3539

기초 영어 · 중국어 무료 수강생 모집

□ 접수 : 3.3(월) 오전10시 (방송통신대 강의실 306호)
□ 강좌기간 : 3월~6월(4개월)
□ 대상 : 성인 남여 누구나
□ 과목 : 영어(기초회화, 기초문법, 여행영어, 파닉스) 중국어(기초회화, 중급회화)
□ 회비 : 1과목(2만원) 2과목(3만원) 3과목(4만원) 교재비 별도.
□ 주관 : 강원여성자원봉사단 배움의 교실

보건

피부과 무료진료

□ 일시 : 3.18.(화)10~14시
□ 장소 : 춘천시보건소(☎250-3573)
□ 진료내용 : 피부과 모든 질환 무료진료 및 투약(무좀, 습진 가려움증, 잘 낫지 않는 상처 등)
□ 의료진 : 한국한센복지협회강원도지부 피부과 전문의 외 2명

행정 · 기관

국가가 지원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춘천시 공공형 어린이집 15개소)
□ 공공형 어린이집 확인방법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정보찾기 ⇒공공형어린이집 찾기

과거사 관련 기록물 찾기

□ 최근 3 · 1운동 피살자 명부 등의 공개를 계기로, 춘천시에서는 국내 소재 과거사 관련 기록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는 대한민국의 귀중한 역사적 보물이 길이 남을 것입니다.
□ 조사대상 : 일제강점기~정부수립 이후 한국 변천사를 보여주는 개인 및 단체 소장 기록물 (예시 : 일제하 강제동원과 관련된 각종 통지서류, 서신, 사진 등)
□ 조사기간 : 3.14까지
□ 문의 : 춘천시 총무과(☎250-3235)
□ e메일 : mignonsn@korea.kr

2014년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 교육일시 : 3.5(수, 09~13시)
□ 교육장소 : 춘천문화예술회관
□ 교육인원 : 지역민방위대장 616명(통 · 리장)
□ 교육내용 : 국가안보, 교통안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문의 : 춘천시 안전총괄과(☎250-3264)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2014년 3월 17일까지 공단에 '2013년도 보수총액신고서'을 제출하여야 함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 산재보험 업종이 건설업 또는 벌목업인 경우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013년 보험료신고서'를 제출)
□ 문의 : 근로복지공단춘천지사
☎240-6134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 안내

□ 3월 31일은 건설업 · 벌목업 사업장의 고용 · 산재보험료 신고 · 납부기한입니다.
□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 신고 · 납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주는 신고 · 납부 안내 책자 및 고객지원센터(☎ 1588-0075), 홈페이지(www.kcomwel.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수수료 인상 안내

□ 인상시기 : 2월 27일부터
□ 인상항목 : 운전면허수수료(현행 6,000원에서 7,500원으로) 외 12항목
□ 문의 : 도로교통공단 춘천운전면허시험장(☎269-1231) www.koroad.or.kr

제393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주민대피훈련〉

□ 일시 : 3. 14(금), 14:00~14:20(20분간)
□ 대상지역 : 시 전역
□ 훈련내용 :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 기타 : ▷고속 · 자동차전용도로, 전철, 철도, 지하철, 항공, 선박 정상운행 ▷병원은 정상진료, 모든 운전자와 승차자는 차내에서 방송 청취
□ 문의 : 춘천시 안전총괄과 ☎250-4258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 협력기관 : 현대자동차(지점장 차순구), 기아자동차(지점장 김명섭) 카포스 춘천지회(지회장 이춘복)
□ 점검장소 :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 정비 품목 : 각종 오일점검, 냉각수 점검 · 타이어 공기압체크 및 보충, 윈도우 브러쉬, 전구 등 소모품 교환
□ 점검시기 : 3월~11월, 매월 첫 주 월요일 ,
□ 문의 :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
(☎250-3245)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연장

□ 목적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 신청기간연장 : 6월 30일까지
□ 지급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 지급대상의 본인 또는 유족
□ 신청방법 : 춘천시 총무과 방문접수 (☎250-3099)
※ 유의사항 :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없으므로 접수에 따른 금품요구나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

어린이집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수령, 부실급식제공 또는 차량안전운행 미이행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사례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고 및 지급대상 :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식부실, 차량 불법운행 등
*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완료, 기타 행정 처분 종료 된 사례에 대해 지급
□ 신고 제외 : 공무원 및 보육업무 유관기관, 당사자가 불법과 관련한 행위를 한 자 등
* 동일사항에 대해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타 기관에서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제외
□ 신고방법 : 지자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 문의 : 춘천시 여성가족과(☎250-3686)

자연재해는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 : 주택(단독 · 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험료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 문의 : 춘천시 건설과(☎250-4268)

통학 시내버스 노선표

통학 시내버스 노선 (춘천고, 성수고, 성수여고, 유봉여고)

노 선 (출발시각)	정차 승강장 (승강장번호)	탑승 거주지
S - 1 (07:30)	①칠전대우A(1149)	칠전대우 1 · 2차
	②한진, 한성아파트(1114)	현대 1 · 2차, 한성, 한진, 그린타운아파트
	③현대1차아파트(1113)	
	④풍물시장(1629)	온의럭키, 마젤란, 금호3차, 금호아파트
	⑤춘천고, 성수고, 성수여고(국민은행)⑥유봉여고	(배차 1대)
S - 2 (07:30)	①한진,한성아파트(1114)	현대 1 · 2차, 한성, 한진, 그린타운아파트
	②현대1차아파트(1113)	
	③춘천고, 성수고, 성수여고(국민은행) ④유봉여고	(배차 1대)
S - 3 (07:30)	①퇴계한주A(1117)	퇴계한주A, 금호타운, 퇴계주공 7 · 9차 아파트
	②중앙하이츠1차(1741)	중앙하이츠 1 · 2 · 3차 아파트
	③퇴계우성(1339)	퇴계 우성, 대우이안, 쌍용아파트
	④춘천고, 성수고, 성수여고(국민은행) ⑤유봉여고	(배차 2대)
S - 4 (07:30)	①퇴계2우체국(1338)	현진에버빌 1차, 뜨란채, 퇴계주공 7 · 8차 아파트
	②현진에버빌2차(2106)	현진에버빌 2차, 퇴계주공 5 · 6차 아파트
	③휴먼시아1차(2320)	퇴계주공 1 · 2차, 휴먼시아 1,2차, 유승한내들아파트
	④춘천고, 성수고, 성수여고(국민은행) ⑤유봉여고	(배차 2대)
S - 5 (07:30)	①후평주공4단지후문(1023) (청실아파트 쪽)	청실, 후평대우, 주공4단지 아파트
	②포스코A(1101) S오일 주유소밑	포스코더#, 주공 2 · 3단지, 현대1 · 2차 아파트
	③유봉여고 ④춘천고, 성수고, 성수여고(인성병원)	(배차 1대)
S - 6 (07:30)	①석사대우(2121)	석사대우, 그랜드, 두산, 진흥, 청구, 부영, 석사2지구아파트
	②신한은행 후평지점(1516) – SK주유소 위쪽	포스코더#, 주공 2 · 3단지, 현대1 · 2차 아파트
	③유봉여고 ④춘천고, 성수고, 성수여고(인성병원)	(배차 2대)
S - 7 (07:30)	①초록지붕아파트(2116)	신도브래뉴, 초록지붕, 거두리 부영, 석사삼익 1 · 2차, 석사극동아파트
	②봄내초교(2108)	퇴계주공 3 · 4차, 현대 3차 아파트
	③휴먼시아1차(2320)	퇴계주공 1 · 2차, 휴먼시아 1,2차, 유승한내들아파트
	④춘천고, 성수고, 성수여고(국민은행) ⑤유봉여고	(배차 2대)
S - 7 (07:30)	①봄내초교(2108)	퇴계주공 3 · 4차, 현대 3차 아파트
	②휴먼시아1차(2320)	퇴계주공 1 · 2차, 휴먼시아 1,2차, 유승한내들아파트
	③춘천고, 성수고, 성수여고(국민은행) ④유봉여고	(배차 1대)
S - 8 (07:25)	①신동초등학교(2045)	
	②사우현대A(2196)	사농동 현대아파트
	③농산물도매시장(2274)	롯데캐슬 1 · 2단지 아파트
	④롯데인벤스(1845)	동부, 삼성, 두미르, 강변코아루, 롯데인벤스아파트
	⑤사우사거리(2098)	두미르아파트
	⑥춘천고, 성수고, 성수여고(인성병원) ⑦유봉여고	(배차 1대)
S - 9 (07:30)	①KCC스위첸(1825)	KCC 스위첸
	②만천1리(1836)	한일유앤아이, 만천주공LH, 대동다숲
	③임업협동조합(1002)	두산위브
	④유봉여고 ⑤춘천고, 성수고, 성수여고(인성병원)	(배차 1대)



통학 시내버스 운행노선 (춘천여고)

노선 (출발시각)	정차 승강장 (승강장번호)	탑승 거주지
S-10 (07:30)	①칠전대우A(1149)	칠전대우 1, 2차
	②한진,한성아파트(1629)	한성, 한진, 현진
	③현대1차아파트(1113)	현대 1 · 2차, 그린타운아파트
	④퇴계우성(1132)	퇴계 우성, 대우이안, 쌍용아파트
	⑤석사대우(2121)	석사대우, 그랜드, 두산, 진흥, 청구, 부영, 석사2지구아파트
	⑥후평4단지 후문	청실, 후평대우, 주공4단지 아파트, 금호빌리지
	⑦춘천여고	(배차 2대) 07:30 동시출발
S-11 (07:30)	①온의금호1차(1634) (SK호반주유소앞)	온의럭키, 마젤란, 금호3차, 금호아파트, 보배, 온의한주
	②휴먼시아2차(2319)	퇴계주공 1 · 2차, 휴먼시아1 · 2차, 유승한내들아파트
	③춘천여고	(배차 1대)
S-12 (07:30)	①중앙하이츠1차(1744)	중앙하이츠 1 · 2 · 3차 아파트
	②퇴계금호A(1137)	퇴계한주A, 금호타운, 퇴계주공 7 · 9차 아파트
	③퇴계2우체국(1338)	현진에버빌 1차, 뜨란채, 퇴계주공 7 · 8차 아파트
	④현진에버빌2차(2106)	현진에버빌 2차, 퇴계주공 5 · 6차 아파트
	⑤봄내초교(2109)	퇴계주공 3 · 4차, 현대 3차 아파트
	⑥춘천여고	(배차 2대) 07:30 동시출발
S-13 (07:35)	①초록지붕A(2116)	신도브래뉴, 초록지붕, 거두리 부영, 석사삼익 1 · 2차, 석사극동아파트
	②거두주공A(1169)	성우오스타, 거두주공아파트, 호반베르디움
	②석사대우(2121)	석사대우, 그랜드, 두산, 진흥, 청구, 부영, 석사2지구아파트
	③춘천여고	(배차 1대)
S-14 (07:25)	①신동초등학교(2045)	
	②사우현대A(2196)	사농동 현대아파트
	③농산물도매시장 (2274)	롯데캐슬 1 · 2단지 아파트
	④롯데인벤스(1845)	동부, 삼성, 두미르, 강변코아루, 롯데인벤스아파트
	⑤사우사거리(2098)	두미르아파트
	⑥동산아파트(1860)	극동아파트, 동산아파트
	⑦신성교회(2004)	세경3차, 에리트아파트, 현대1차 아파트
	⑧현대3차아파트(1068)	포스코더#, 주공 2 · 3단지, 현대2-4차 아파트
	⑨춘천여고	(배차 2대) 07:25 동시 출발

통학 시내버스 운행노선 (강원고)

노선 (출발시각)	정차 승강장 (승강장번호)	탑승 거주지
S-15 (07:25)	①퇴계2우체국(1111)	현진에버빌1 · 2차, 뜨란채, 퇴계6 · 7 · 8차
	②퇴계한주아파트(1117)	퇴계한주,금호타운, 퇴계7 · 9차
	③중앙하이츠1차(1741)	중앙하이츠1 · 2 · 3차
	④퇴계우성아파트(1339)	퇴계우성, 대우이안, 쌍용
	⑤현대1차아파트(1112)	현대1 · 2차, 그린타운
	⑥퇴계우체국(1131)	한진,한성
	⑦풍물시장(1629)	온의럭키, 마젤란, 금호, 보배
	⑧공지천사거리(2002)	미소지움
	⑨강원고등학교	
S-16 (07:25)	퇴계3,4차아파트(1128)	석사현대3차, 퇴계3 · 4차
	초록지붕아파트(2116)	신도브래뉴,초록지붕, 거두부영, 석사극동, 삼익
	거두주공아파트(1169)	성우오스타, 호반베르디움,거두주공
	석사대우아파트(2121)	석사대우,그랜드,두산, 진흥,청구, 동아,부영, 석사2,3지구
	후평주공4단지 후문(1023)	후평주공4단지,후평대우, 청실,금호빌리지
	스위첸아파트(2267)	KCC,한일유앤아이
	강원고등학교	
S-17 (07:25)	신동삼거리(2045)	신동삼거리
	사농현대아파트(2197)	사농현대
	농산물 도매시장(2274)	롯데캐슬
	롯데인밴스아파트(1845)	동부,삼성,인벤스
	사우사거리(2098)	두미르
	후평극동아파트(1860)	후평극동,동산,봉의,세경3차
	강원고등학교	

<춘천시 교통과 ☎250-3049>

조류인플루엔자(AI) Q&A

모두가 힘을 모으면,
AI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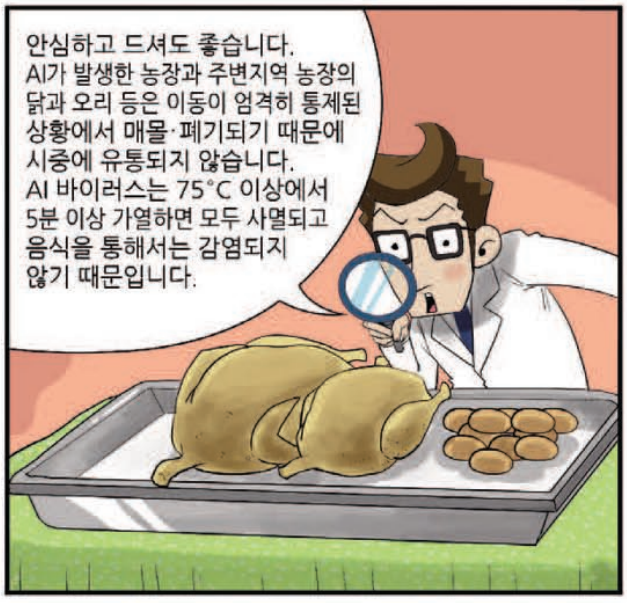
Q1 AI는 무엇인가요?



Q2 AI는 어떻게 퍼지나요?



Q3 닭고기나 오리고기, 계란, 먹어도 되나요?



Q4 확산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대한민국을 보호합니다. 의심가축 신고전화 1588-9060 / 1588-4060

NIS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국가안보!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관심 있게 보면, 안보가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번호 111을 기억하세요

간첩, 좌익사범, 국제범죄, 테러, 산업스파이, 사이버안보위협 **신고전화 111**

신고보상금 간첩 최고 5억원 / 간첩선 최고 7억5천만원

불법기부행위는 상시제한됩니다.



불법기부행위란?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위반사례 예시

- 입후보 예정자, 정당의 간부 등으로부터 기념일 등에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간담회 참석 등의 이유로 교통편의 또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산악회·동창회 등 주최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 입후보 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받는 행위

5대 중대선거범죄



금품 · 향응제공행위 등 **돈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 · **흑색선전** 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사조직 · 유사기관을 이용한
불법행위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